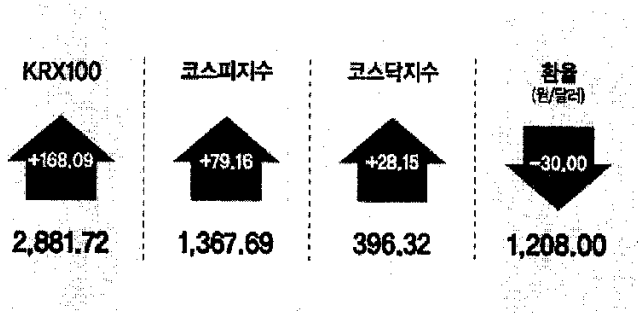
NEWS SUMMARY

2008.10.15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 유가증권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15264.0	15097.8	-166.2
외국인	16389.5	17771.9	1382.3
개인	36180.4	35378.7	-801.7
기타	2191.2	1763.4	-427.8

•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364.7	421.9	57.2
외국인	795.5	912.8	117.3
개인	8358.4	8267.1	-91.3
기타	218.4	135.6	-82.9

• KOSPI 200 선물·옵션 단위:포인트

종목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미결제약정
11월물	178.00	8.10	328,078	104,052
콜167.5	17.10	4.80	2,132	12,357
풋167.5	6.45	-4.35	66,935	33,423

• 금리

종류	당일시세(연%)	전일대비
콜	4.95	-0.03
CD(91일)	6.03	0.03
회사채(AA- 3년)	7.94	0.02
국고채(5년)	5.31	-0.02

• 환율 단위:원, 현찰거래, 외환은행

통화	고객 살 때	고객 팔 때
미국 달러	1183.92	1226.08
일본 100엔	1156.51	1197.69
유럽 유로	1612.34	1677.80
중국 위안	167.61	188.78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01면

아시아증시 동반폭등

코스피 79P↑ 1367…日 14%↑

부시 "2500억달러 은행에 투입"

【워싱턴 윤경호 특파원·서울 이한나·강다영 기자】 금융위기 해소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면서 전일 미국에 이어 14일 일본 증시도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세계 증시가 동반 폭등했다.

14일 코스피는 이틀째 상승하며 단숨에 136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79.16포인트(6.14%) 급등한 1367.69로, 코스닥지수도 전일보다 28.15포인트(7.65%) 뛴 396.32로 마감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구체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투자심리를 회복시킨 게 주효했다.

원·달러 환율이 나흘째 내린 것도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0원 하락한 1208.00원에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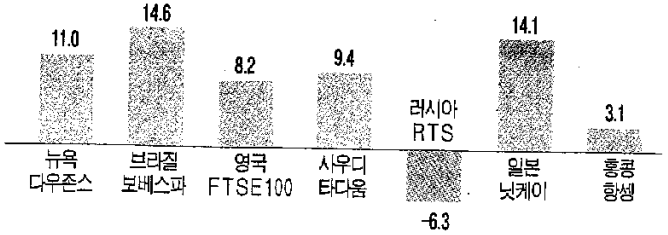
아시아 주요 증시도 폭등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사상 최대 상승폭인 1171.14포인트(14.15%) 올라 9447.57로 마쳤다. 홍콩 H지수와 항셍지수도 각각 4.35%와 3.19% 상승 마감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 출발했으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면서 전일보다 2.71% 하락한 2017.32로 마감했다.

전날 폭등했던 유럽 증시는 14일 장이 열리자 급등했지만 장 후반 상승폭이 줄었다. 15일 0시 20분 현재(한국시간) 영국 FTSE100지수는 전일보다 1.8%, 프랑스 CAC40지수는 1.9%, 독일 DAX30지수는 1.8% 각각 오른 채 거래됐다.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 같은 시간 미국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5%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37% 떨어졌다.

한편 부시 미국 대통령은 2500억달러를 투입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은행들의 지분을 올해 말까지 사들이기로 했다. 또 은행 간 자금거래에 대해 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3년간 지급 보증해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A3·4·5·22면

세계증시 패닉 탈출…투자심리 살아나나

세계 주요국 주식시장 변동률 (단위=%, 10월 13일 종가 기준. 아시아 국가는 14일 종가 기준)



"바닥 도달…투자적기" 전문가 늘어
"금융위기 뒤엔 경기침체" 신중론도

금융시장 지원계획 밝히는 폴슨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벤 버냉키 FRB 의장(왼쪽)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9개 주요 은행 지분 매입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뉴욕 위정환 특파원】 '뉴욕 증시, 바닥을 쳤나?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가?'

지난주 최악의 한 주를 보낸 '폭풍의 핵' 미국 뉴욕 증시가 13일(현지시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 대책에 힘입어 사상 최대 폭등을 하면서 세계 증시 반등을 견인했다.

뉴욕 증시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선 것인지 아니면 반짝 상승 후 다시 약세를 보일 것인지를 놓고 월가에서는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악의 한 주 벗어난 최고의 하루

13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936.42포인트(11.08%) 상승한 9387.61로 마감했다. 이 같은 다우지수 상승폭은 112년 역사상 최대폭이다. S&P500지수도 104.13포인트(11.58%%) 급등한 1003.35로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 상승률은 각각 1932년과 1933년 이래 최대다.

유럽 증시도 최악의 일주일에서 벗어나 최고의 하루를 맞았다. 범유럽 다우존스 스톡스 600지수는 지난주에 22%나 빠지는 최악의 성적을 거뒀지만 이날은 사상 최대인 10%나 폭등했다. 지난주에 20% 이상 급락했던 영국 런던 FTSE100, 프랑스 파리 CAC40,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 등 유럽 3대 주가지수는 이날 8~11%대 폭등세를 나타냈다.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이 이날 폭등세를 보인 것은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 부실 해소를 위해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럽 각국이 2조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금융시장 신뢰가 다소 회복되고 세계 경제 악화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동안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인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바닥이냐, 반짝 반등이냐

이처럼 주가가 급락세에서 벗어나자 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바닥에 도달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을 낙관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13일 주가 상승이 절대적으로 바닥권을 탈출한 것은 아닐지라도 일부 주식과 산업 주가는 너무 싸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동안 주가 낙폭이 큰 데다 금융권 부실이 시장에 알려질 관심 알려졌고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템플턴자산운용 신흥시장 투자 전문가인 마크 모비우스 펀드매니저는 이날 미국 CNBC 방송과 회견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바닥을 보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주식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SAM어드바이저 최고경영자인 빌 스미스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시장은 이미 크게 올라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투자 적기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여전히 많다.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 경제가 경기 침체에 돌입했거나 근접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많은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이들 주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JP모건애셋매니지먼트의 팀 해리스는 "이번 경기 침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전개될지 알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에 새로운 강세장이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12개월은 투자자들에게 기복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향후 2년간은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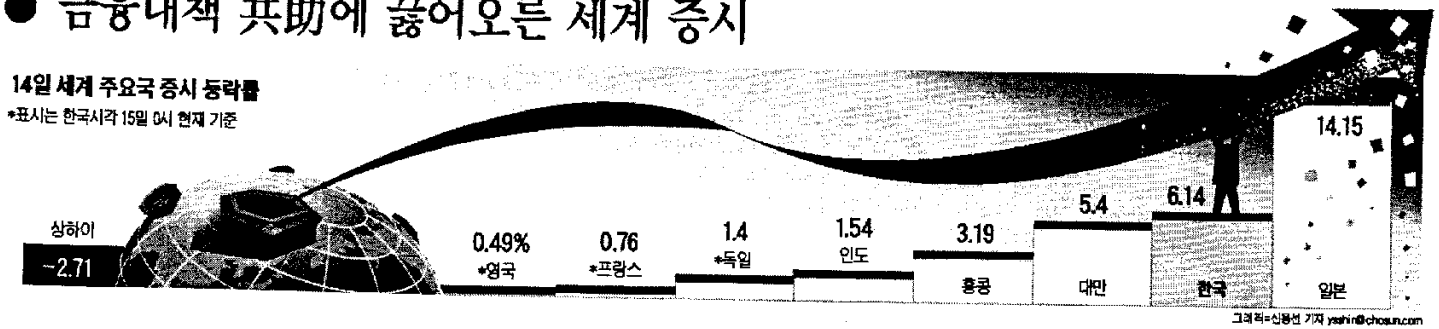
투자분석가인 필 로스는 "사람들이 금융위기에서 살아났다고 안도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경기 침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경기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고 신중론을 폈다.

약세장 속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과거 사례도 엇갈린 면을 보여준다. 하루 상승폭이 10% 이상인 사례는 과거에 다섯 차례 있었다.

이 중 1987년과 1933년에는 하루에 주가가 10% 이상 오른 후 약세장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1929년 1931년 1932년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는 반짝 반등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많은 시장 역사학자들은 13일 하루 폭등만을 놓고 국면 전환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한다.

대한경제

● 금융대책 共助에 끓어오른 세계 증시



"악몽에선 깨어났지만 날 밝으려면 아직…"

전문가들 "돈 가뭄은 일단 풀려… 이젠 실물경제가 문제"

주가 예상엔 양론… "더 빠질 수도" "주식 사기 좋은 가격"

정말 악몽은 끝났을까.

13일(현지 시각) 글로벌 공조의 움직임 속에 전 세계 각국이 금융 안정책을 내놓자 시장은 급격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13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선 다우지수가 최대 상승 폭 기록을 세웠고, 14일엔 일본 증시가 14.15% 폭등하며 역시 사상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 증시에서는 연 이틀째 급등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일시 선물(先物)시장 관련 주문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러나 대반등의 흥분이 차츰 가라앉는 모습이다.

14일 개장한 미국 증시는 장 초반 4% 급등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열이 진정되며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었다.

◆유동성 위기는 일단 해결

증시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의 글로벌 공조로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 이후 전 세계 금융기관이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돈 가뭄(유동성 위기)현상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렌미드 인베스트먼트의 크리스토퍼 콜러릭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공조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얻어 돈을 집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연구원은 "아예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리듯 자금을 투입하는데, 유동성 위기는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제부턴 실물경제 위기

그러나 역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각국의 공조 조치가 '유동성 위기' 해결 대책일 뿐이라고 얘기한다. '본게임'이 될 실물경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메리츠증권 윤세욱 상무는 "한없이 추락하는 악몽에선 깨어났지만 아직 창 밖은 여전히 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안정책으로 각국 정부가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이 자금은 금융기관의 부족한 자금을 메워주는 데 그치고 정부의 재정자금을 축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일본 신코증권 미우라 유타카 정보부 차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경기대책이 중요한데, 각국이 금융문제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경기대책을 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금융 자체가 실패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는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과다한 차입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은행에 자본을 투입해 봐야 뜨거운 난로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격"이라며 "미국의 구제금융이 실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가 향방에 대해선 양론

다만 실물경제가 앞으로 나빠진다는 사실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앞으로 다시 급락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실물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증시가 지난주처럼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템플턴자산운용의 신흥시장 투자 전문가인 마크 모비우스 펀드 매니저는 CNBC에 출연, "실물경제에는 상당한 위축이 발생할 것이지만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 주식시장은 현 수준보다 아주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또 그 동안의 하락 폭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2003년부터 시작된 세계 증시의 대세 상승기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대공황'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나 가능한 지수라는 것이다. 투자전략가인 에드워드 야마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에 엄청나게 좋은 가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반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폭락은 없을지 몰라라도 현 수준에서 주가가 다소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세계 각국의 조치는 돈이 넘쳐서 문제가 된 것을 다시 돈을 넣어 막은 꼴"이라며 "일시적으로 주가가 좋을 수 있지만 실물경제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 내년 후반기에 2차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박종세 특파원 jspark@chosun.com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04면

이젠 실물경제…전세계 경기부양 착수

세계 각국의 동시 다발적 시장 안정책이 '약발'을 발휘함에 따라 이제 세계의 눈은 실물경제에 쏠리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감은 일단락되더라도 세계경제 동반침체라는 2차 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금융시장에서의 조치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글로벌 실물경제의 현황과 각국의 대책들을 살펴봤다.

대선후 1500억달러 '신뉴딜정책'

미국

미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붕괴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와 실업 증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려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다. 미국 소매업체협회(NRF)는 2002년 이후 최악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을 것으로 예고했다. 11월,12월 두 달 동안 소매업 매출이 4704억달러로,증가율이 지난 10년간의 평균 신장률(4.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2%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인 RBC캐피털마켓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가량은 연말 쇼핑 시즌에 가전제품 등의 구입을 자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쇼핑 시즌에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제품 소비가 위축될 경우 관련 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자동차 판매난도 갈수록 심해져 올 들어서만 자동차딜러 600여곳이 문을 닫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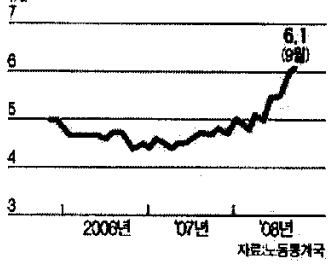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위축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해 고용을 줄인 결과이기도 하다. 9월 중 실업률은 5년 만의 최고 수준인 6.1%로 치솟았다. 경기침체로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은 13일 하버드 경영대학원 백주년 기념식에서 "가계와 정부의 높은 채무 부담이 미국을 경기침체로 몰고 갈 것"이라며 "실업률이 9%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일본처럼 L자형의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주택시장 붕괴도 경기침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신규 주택판매는 8월 중 8.3% 감소했고,주택가격은 1년 전에 비해 7.5% 떨어졌다.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경기침체는 이미 시작됐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미 의회는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신뉴딜정책'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부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자는 계획이다. 규모는 15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단행된 1차 경기부양책(1680억달러)에 버금가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대선 후 의회가 열리면 경기부양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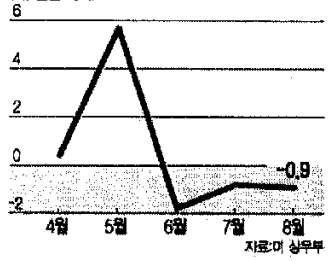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미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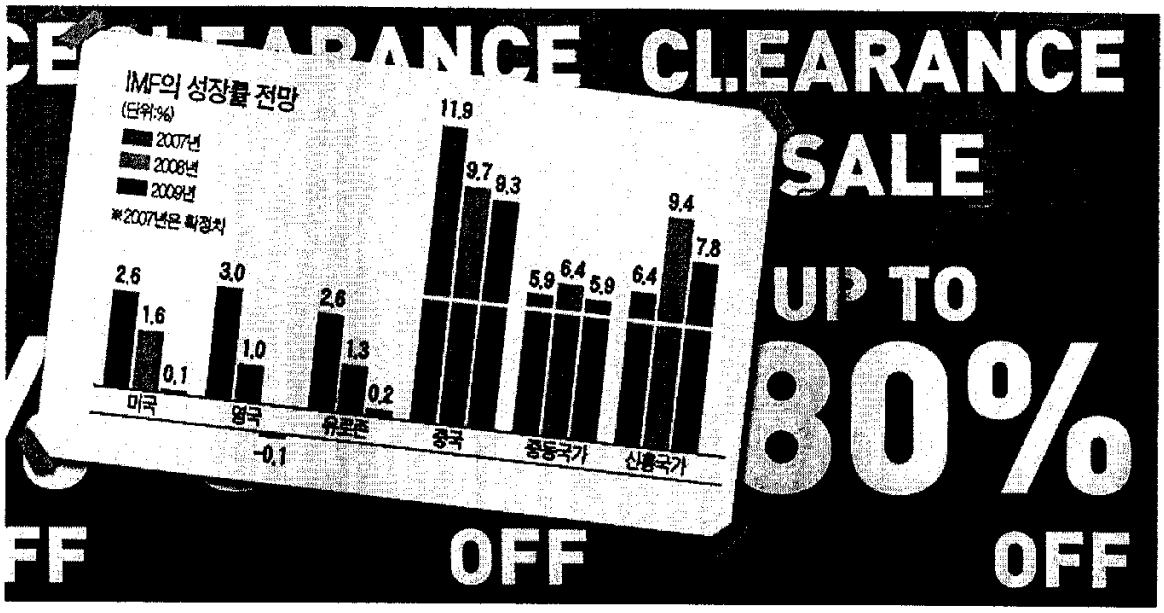
자료:노동통계국

미국 가처분 개인소득 증감률



자료:미 상무부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04면



금리인하 이어 '재정정책 공조' 목소리

유럽·신흥국

유럽 호주 멕시코 등도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거나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 2분기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공식적인 경기후퇴를 뜻한다. 영국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건설업체들이 줄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세계 최대 부동산시장조사업체인 영국 로열인스티튜션(RICS)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9월 주택 판매는 30년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미국 등과 맞춰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75%로 낮추며 통화정책 초점을 경기부양으로 옮겼으며, 각국 정부도 재정 지출 확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아일랜드 등은 이미 내년 예산에 부양책을 반영키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각국 정부가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기업 채산성은 악화되며, 실업률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라며 "금리인하 공조에 버금가는 재정정책 공조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는 13일 경기부양을 위해 104억호주달러(약 8조90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퇴직연금 생활자를 위해 48억호주달러, 저소득 가구를 위해 39억호주달러,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해 15억호주달러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1억8700만호주달러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멕시코도 도로 학교 병원과 정유시설 건설을 골자로 하는 530억페소(약 5조5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부양책엔 정유시설 건설을 위한 120억페소가 포함돼 있는데 멕시코에서 정유시설 건설은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다. 또 260억페소(2조6000억원)를 투입해 도로 학교 등 인프라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을 확대하고 정부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04면

한달만에 두번째 내수 부양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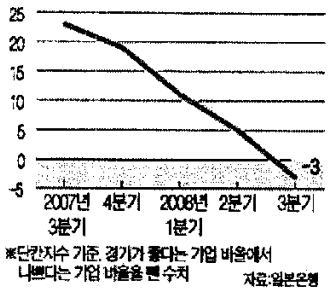
일본

일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말 소득세 감면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소 다로 총리는 지난 9일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간부들을 불러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대책에는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 기업 설비투자 세제 지원 등 감세 조치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중소·영세기업 자금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말 경기 하강 조짐에 대응해 저소득 계층의 개인 소득세를 일정액 깎아주는 등 11조7000억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대책에서 중소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해 쓸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원으로 4000억엔을 지원하고, 화물트럭 등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인하키로 했다.

일본 기업체감경기 추이



*단칸지수 기준. 경기가 좋다는 기업 비율에서 나쁘다는 기업 비율을 뺀 수치 자료:일본은행

2002년 초 이후 연 2% 수준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온 일본 경제는 올 2분기(4~6월)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져 경기가 급속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경기 위축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한때 달러당 100엔 선 밑으로 떨어진 엔화 환율(엔화가치 상승)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도요타자동차는 올 한 해만 1600억엔을 넘는 영업이익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 도요타는 당초 올해 엔·달러 환율을 평균 105엔으로 잡고 경영계획을 짰다.

내수 위축도 심상치 않다. 일본의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올 4~9월 중 241만대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2.7% 줄었다. 30년 전인 1978년 수준이다. 기업 체감경기지표인 단칸지수도 5년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0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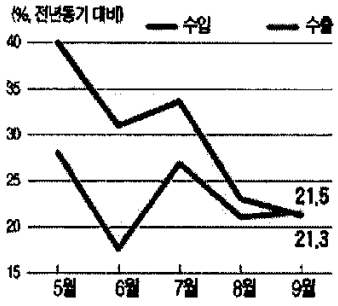
경제정책 '긴축'서 '성장'으로 전환

중국

중국 해관(세관)은 14일 9월 무역흑자가 293억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지만 전문가들은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전월보다 0.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수입은 1.8%포인트 줄었다. 수출은 제자리 걸음인데 수입이 줄어 흑자폭이 커졌다는 결론이다. '중국의 경기는 분명 후퇴하고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긴급보고서가 이날 오후에 발표됐다. 홍콩도 예외는 아니다. 홍콩대학은 홍콩의 3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종전 5.3%에서 3.2%로 낮추고, 4분기 전망치를 2.6%로 잡았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당초 8월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7.8%로 곤두박질쳤다. 9월 판매도 -7.0%로 예상된다. 철강업체들은 가격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올초만 해도 귀한 대접을 받던 철광석이 애물단지가 돼 해외 광산업자들에 중국에 대한 선적을 늦춰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중국 월별 수출입 증가율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파가 수출 주도의 중국 경제에 강하게 몰아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1분기까지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소시에테제네랄 아시아담당 글렌 마구어 연구원)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증가율은 21.5%였다.

중국 정부는 경제운용 기조를 긴급히 전환하고 있다. 물가억제에서 성장 중심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6년 만에 금리를 내린데 이어 최근 또다시 인하했다. 자사주 취득 허용, 증권거래세 면제 등 증시부양책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일부 시에선 부동산 취득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으려는 비상대책도 도입됐다. 이뿐만 아니라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을 부활시키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출 중심 구조를 내수와 수출의 균형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04면

英 속전속결 금융위기 해법이 통했다

부실은행 과감한 국유화로 확산 막아

브라운총리 '新브레턴우즈 체제' 주장

'세계 금융위기를 구해낸 일등 주역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57)다.'

유동성 가뭄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 조치로 해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지역) 15개국은 은행 간 대출 보증과 재자본화(공적자금 투입) 등에 합의해 13일 유럽 각국이 2조3000억달러(약 2762조3000억원) 규모 구제금융안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고든 브라운 총리의 발빠른 위기 수습 대책과 노력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와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존 15개 국가가 영국식 구제금융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미국마저도 영국 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등 브라운 총리 위기 해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브라운 총리,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사로

1997년부터 10년간 영국 재무장관을 지낸 고든 브라운은 영국 역사상 최대 부동산 붐과 10년 장기 경제성장 신화를 일궈낸 인물이다.

그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임자인 토니 블레어와 비교되면서 카리스마 없는 총리라는 혹평을 받았다. 15%라는 역대 최저 지지율로 집권 노동당 내에서조차 그가 총리로 재임하면 2010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재무장관 출신인 브라운 총리는 위기 때 빛을 발휘했다. 과감하고 핵심을 찌르는 구제금융안을 적기에 마련해 프랑스 등 유로존 15개국이 따라오도록 한 것이다.

FT는 칼럼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브라운 총리를 비교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금융위기 초기에 사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금융회사 지분 매입을 거부하는 등 위기상황을 부채질했지만 브라운 총리는 사태 본질을 냉혹히 파악해 절제된 자세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브라운 총리는 부실 은행 구제를 위해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해 금융업체 부분 국유화를 추진하는 등 '차별된' 위기 해법을 먼저 선보였다.

미국식과 영국식 구제금융에서 가장 차이나는 점은 정부가 은행 지분을 인수해 은행을 소유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미국식 구제금융은 정부가 은행 지분을 인수하지만 소유권까지는 갖지 않는 게 특징. 이에 비해 영국식은 국가가 은행 주식을 취득해 은행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은행 간 중·단기 상업대출을 정부가 직접 보장해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게 핵심. 사실상 은행 부분 국유화와 대출 보증 확대 등을 뜻한다.

브라운 총리는 공적자금 370억파운드 규모를 투입해 주요 은행을 부분 국유화했으며 은행 간 거래 자금 활성화를 위해 2500억파운드 규모 대출신용보증기관 신설 등 금융안정책을 선보였다. 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부실 금융회사 도산을 막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호응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금껏 은행 국유화에 반대 의견을 보여온 독일마저 13일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바꿨다.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 필요성 제기

금융위기로 전 세계 금융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국제적 노력이 '약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국제 금융시스템 필요론도 제기되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국제금융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며 신(新)브레턴우즈 협정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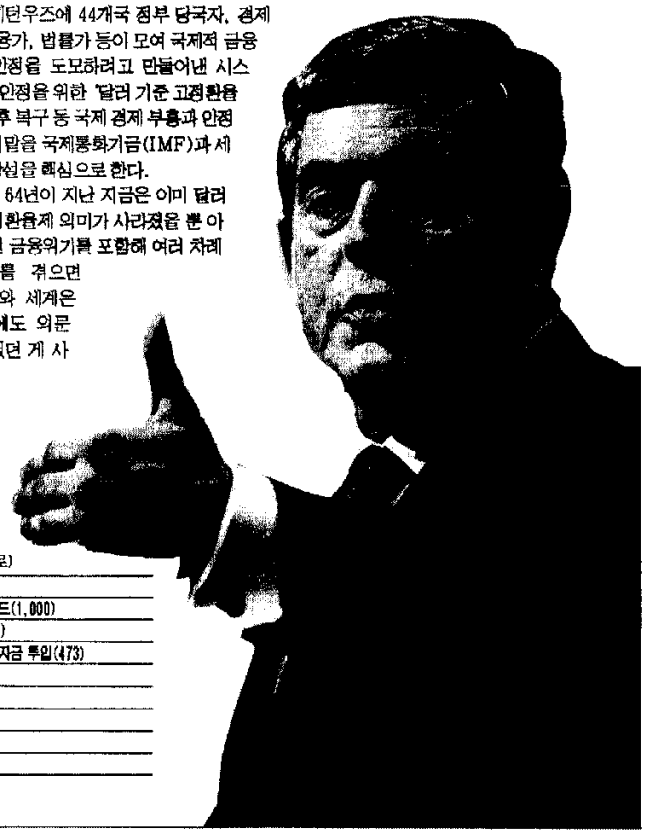
이에 앞서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신브레턴우즈 체제 창설 필요성을 역설해 논의에 불을 지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44개국 정부 당국자, 경제학자, 금융가, 법률가 등이 모여 국제적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려고 만들어낸 시스템. 환율 안정을 위한 '달러 기준 고정환율제'와 전후 복구 등 국제 경제 부흥과 안정 기능을 떠맡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창설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64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달러 기준 고정환율제 의미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이번 금융위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IMF와 세계은행 기능에도 의문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결국 국제 금융시장에서 '파수꾼' 노릇을 할 새 체제 필요성을 브라운 총리와 라미 사무총장 등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제기하기 시작했고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와 같은 '관리형' 시스템은 국제적 자본 이동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게 되고 이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브레턴우즈로 회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론 역시 만만찮다. 김민구 기자



유럽 각국 금융안정책 (단위=억유로)

국 가	총 액	내 용
독일	5,000	은행 간 대출보증(4,000), 금융시장 안정화펀드(1,000)
프랑스	3,600	은행 간 대출보증(3,200), 은행 자본확충(400)
영국	473	3개 은행(RBS·로이즈TSB·HBOS)에 공적자금 투입(473)
네덜란드	2,000	은행 간 대출보증(2,000)
스페인	1,000	은행 간 대출보증(1,000)
포르투갈	200	구제금융펀드 조성 및 예금보장(200)
오스트리아	1,000	은행 간 대출보증(850), 은행 자본확충(150)
이탈리아	200	필요한 만큼 은행 보호에 투입(200)

※자료=파이낸셜타임스(FT)

東亞日報

2008년 10월 15일 b01면

모처럼 웃은 원화… 실물경제가 변수

14일 오후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의 얼굴에 오랜 만에 화색이 돌았다. 이달 2일부터 환율이 나흘 새 208원이 오르는 바상 상황에 대처하며 파김치가 된 그에게 이날 환율이 30원 떨어져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 최 국장은 "해외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돌발 상황이 없는 한 환율은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시장이 잠잠해지면 고생한 직원들과 중국 음식점에서 회식하고 싶다"고 말했다.

환율 나흘째 떨어져 1100원대 문턱에
전문가 "돌발상황 없는 한 하락세 전망"

최 국장이 직원들과 맘 놓고 회식할 수 있는 날은 언제가 될까. 외환 전문가들은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풀리고, 4분기(10~12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확인되는 시점이라야 '회식일'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서울 외환시장을 짓눌렀던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도한 충격과 공포는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여진과 돌발 악재에 환율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말(1207원)에 근접한 1208원으로 내렸다. 이달 초 상승분을 반납한 것이다. 이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지난달 16일 이후 최장기 하락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과도한 불안 심리를 멀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면서 외화자금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환율 하락을 예상하는 수출업체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최 국장은 환율 하락의 원인으로 △선진국 증시가 호전됐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매입이 줄었고 △기업들이 보유한 외환을 외환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균형 환율(1002원), 삼성그룹의 내년도 경영계획의 기준 환율(1040원)은 지금보다 160~200원 낮다. 반면 SK경제경영연구소는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는 환율을 현 수준인 1200원으로 추정했다. 현재 환율은 '리먼 사태' 직전인 지난달 12일(1109.1원)보다 98.9원 높다.

최 국장은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환율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맞게 안정될 것"이라며 "민간 연구소들이 전망한 환율 수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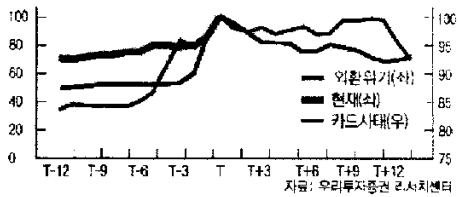
우리투자증권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4분기 6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고 대기업의 달러 매도 가능 금액이 240억 달러 정도 된다는 점을 근거로 환율 하락을 점치고 있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980년 이후 한국은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 차례 환율 급등 시기를 겪었다"며 "환율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환율이 빠르게 하락한 선례를 볼 때 최근 환율이 연말에 1100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연 0.5%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 고수익 외화자산에 투자하며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한 일본의 '엔 캐리 자금'이 돌아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본격 회복 시점은 아닌 데다 내년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몇 분기 동안 4%대 미만의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200원 선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본다"며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 1150원 부근에서 하락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환율 급등시, 전후 1년간의 환율 움직임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당시 환율이 최고점에 육박을 때를 100(T시점)으로 보고 전후 1년간 환율 움직임을 비교한 것.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05면

□원화값 나흘째 상승한 내막 살펴보니

기업 달러로 투신사 헤지물량 사전차단

그동안 달러 수요 압력으로 작용해왔던 자산운용사의 헤지 물량을 장외시장으로 펴내면서 원화값이 나흘 연속 안정세를 보였다.

최근 일거래량이 40억달러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도 이 같은 물량이 사라지고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중심으로 실수요자만 거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외환은행을 찾은 한 고객이 송금 환율이 떨어지자 즐거운 표정으로 예금통장을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해외투자 헤지 물량은 최근 서울외환시장의 최대 달러 수요처였다.

시장에서는 올해 자산운용사의 헤지 수요는 국내 설정 펀드만 감안해도 약 2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최근 달러 수요를 통한 원화값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달러 수요를 역외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환헤지 수요 때문에 달러당 원화 환율이 250원이나 뛴 지난 8일과 9일 시장을 예의주시했다"며 "이때 시장에 나온 환헤지 수요가 각각 5억달러, 11억달러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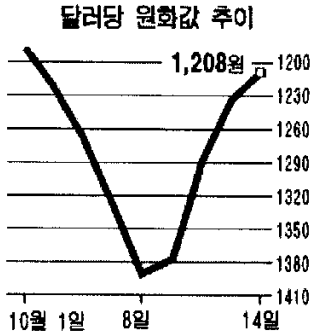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들의 장내거래를 억제하고 장외에서 거래를 유도했다는 것.

거래방식은 이들의 수요만큼 공급을 대줄 수 있는 수출기업 등을 외환당국이 짝지어 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달러를 공급하는 식이다.

이들 거래는 주로 개장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개장 직후 정규장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관계자는 "지난 10·13·14일 사흘 동안 이 같은 장외거래를 관리해왔다"며 "13일과 14일에는 주간 거래시장의 환헤지 거래물량이 1억달러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국계 은행의 한 딜러는 "그동안 원화값 급락에 큰 영향을 줬던 달러 수요를 정부에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줄고 가격 변동폭도 크게 감소했다"며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도 국정감사에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100% 환헤지하는데 그 비중을 70%로 줄이겠다고 언급해 외환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조휘봉 하나은행 차장은 "1200원대에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공방을 벌였다"며 "며칠간 시장에 물량을 쏟아냈던 수출업체들의 매도물량도 적고 매수세도 원화값 상승 기대감이 있어서 거래량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근·한예경·임성현 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07면

달러유동성 최악은 벗어났다지만…

달러대출 아직도 하루짜리 거래에 의존

日·중국계 은행 국내대출 회수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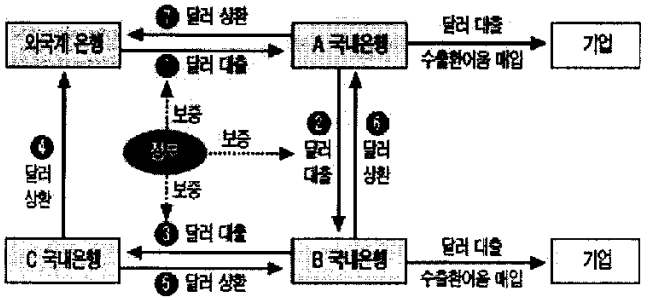
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의 강정원 행장이 은행 간 외화거래 때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내 달러 유동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이 은행 간 자금거래 때 정부 차원에서 보증을 서주기로 한 상태여서 우리 정부만 이를 외면하면 국내 은행들의 달러 자금 경색 현상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어 조만간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달러 경색 여전히 심각

미국 영국 유로존 스위스 중앙은행 등이 금융회사에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발표한 지난 13일부터 외화자금 관련 일부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13일 뉴욕 자금시장에서 한국 정부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CDS(신용부도 위험) 스프레드는 326bp(1bp=0.01%)를 기록, 지난 주말에 비해 41bp 하락했다. 또 14일 홍콩 등 아시아 자금시장에서 외평채 CDS 스프레드는 270bp 수준까지 하락했다. CDS 스프레드는 높아질수록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이며 채권값은 떨어지게 된다.

은행들은 이 같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달러 자금난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은행 자금부장은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한 지금도 달러 대출은 오버나이트(하루짜리)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 일부 외국계 은행에서 롤오버(만기 연장) 비율을 협의하자고 하는데 비율을 대폭 낮추자고 하면 어떻게 맞출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강정원 행장은 "미국에서도 가장 건전하다는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간에도 오버나이트 거래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은행의 사정은 오죽하겠냐"고 상황을 전했다. 외평채 CDS 스프레드 역시 지난달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이전 135bp 수준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 보증을 통한 외화자금 흐름 개선 방안



◆일본·중국계 은행에 촉각

국내 은행들은 일본계와 중국계 은행의 달러 회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미즈호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계 은행들이 1~3개월짜리 단기 차입금에 대한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1년짜리 장기 차입금에 대한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계 은행들은 특히 리먼브러더스와 AIG에 묶린 금액이 상당해 달러 부족 사태에 지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이번 주 들어 상환비율 조정 등을 놓고 일본계 은행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하는 달러 대출금은 각 은행별로 20억달러 수준, 이 가운데 일본계로부터 빌린 돈은 각각 3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계 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달러 대출을 줄여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계 은행의 만기 연장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은행들은 전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런 점 때문에 은행 간 달러 거래 때 정부 지급 보증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 자금담당자들은 "정부가 달러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에 나선다면 일본계나 중국계 은행의 급격한 회수는 줄어들 것"이라며 "전 세계적 정부 보증 추세에 한국 정부만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심기/박준동 기자 sglee@hankyung.com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03면

펀드매니저들이 본 국내 증시 전망

구 분	김 영 일 한국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	박 건 영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양 정 원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이 원 기 KB자산운용 대표	장 인 환 KTB자산운용 대표
상승 지속될까	단기 반등	미니 랠리	기술적 반등	1400선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변수는	금융위기 안정 여부	외평채 금리차	국내 경기	건설사 자금난과 국내 신용경색	환율, 경상수지
연말 전망	1250~1450	1100~1500	1600 이하에서 등락	1200~1600	1150~1500

※ 성명 가나다 순.

코스피 1200~1600서 등락 가능성
신용경색·실물경기등 변수 많아

전 세계 증시 동반 급등으로 국내 증시는 14일에도 이틀째 큰 폭 상승을 이어갔다. 시장 관심은 과연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국내 증시 수급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운용사 대표와 주식운용본부장들은 코스피 상승이 지난 10일까지 이어진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단기 반등으로 회복 가능한 수준에 대해서도 1400선 이상은 힘들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꾸준한 상승이 어렵다고 점치는 이유는 분명하다. 최근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국내 증시를 괴롭혀온 환율 급변동과 경기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 변수 움직임이 향후 등락을 결정짓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하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 저점(종가 기준 1241.47)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운용사 대표와 본부장들은 코스피가 이틀 동안 10.16% 상승한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으로 급락 후에 급등한 것일 뿐이란 얘기다.

김영일 한국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최근 하락이 워낙 급했던 만큼 반등 역시 급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1400선을 넘어서 상승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원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각국 정부 노력이 일시적으로 심리를 안정시켜준 것으로 실물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상승 지속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온 요소들도 해결되지 않은 데다 실물경기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건설사와 국내 신용경색 등이 새롭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됐던 만큼 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뒤에야 상승을 점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박건영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이원기 KB자산운용 사장, 양정원 본부장이 모두 국내 신용경색 해소를 증시 상승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시장을 압박했다면 이제는 부동산 PF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내부 문제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장인환 KTB자산운용 사장은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환율 움직임을 비롯해 3분기 경상수지와 기업 실적 발표 등에 따라 증시가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고 점쳤다.

걱정거리가 많다 보니 올해 안에 코스피가 얼마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최고 1600선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1200대를 저점으로 생각하고 주식을 사들였다는 이원기 사장은 "바닥을 확인한 만큼 하락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승 역시 연내엔 1600선 이내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피력한 김영일 본부장은 "14일 종가 수준에서 100포인트 전후로 등락이 이어지는 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건영 대표는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바닥을 지날 것이라고 전망하면 증시는 내년 상반기나 돼서야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 올해는 등락이 계속되는 장이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투신권 매매를 결정하는 이들은 "낙폭 과대 종목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질수록 손실폭이 큰 펀드투자자들이 대량환매(펀드런)를 하거나 지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염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투자자들이 손실폭이 큰 현재 상황에서 환매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의사 결정이라고 조언했다.

정욱·문수인·박준형 기자

"내년 1달러=1000~1150원 유가는 배럴당 70~100달러"

대기업·민간硏 전망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과 민간연구소들이 내년 원·달러 환율은 1000~1150원, 국제유가는 배럴당 70~100달러(두바이유 기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원화 가치는 올 상반기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나,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인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삼성은 내년 원·달러 평균 환율을 1040원, 평균 유가를 배럴당 94달러로 잡고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원·달러 균형 환율로 제시한 1002원보다 원·달러 환율을 다소 높게 잡았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계열사들이 통상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짠다"며 "환율과 유가를 모두 조금 높게 잡은 셈"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의 싱크탱크인 LG경제연구원은 14일 내년 원·달러 환율을 1100원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국내 경기 하강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6%로 예상된다"고 했다. 작년 5%에서 올해 4.4%, 내년 3.6%로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은 1040원, 유가는 90달러로 예상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제시했다.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상무)은 "국내 체감 경기와 서민 경제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내년 원·달러 환율은 1000~1150원, 유가는 70~100달러로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가 예상보다는 적을 것이나,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SK그룹은 원·달러 환율은 1050~1100원, 유가는 배럴당 80~90달러로 보고 있고, 롯데그룹은 원화 환율이 달러당 11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하반기 1000원대로 떨어지고, 유가는 75~9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방성수 기자 ssbang@chosun.com

주요그룹·민간연구소 2009년 환율·유가 전망 (자료 : 각 그룹, 연구소)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두바이유·단위 배럴)
삼성그룹	1040원	94달러
현대·기아차그룹	1000~1150원(잠정)	70~100달러(잠정)
SK그룹	1050~1100원(〃)	80~90달러(〃)
롯데그룹	1100원대(상반기) 1000원대(하반기)	75~90달러
LG경제연구소	1100원(평균)	90달러대
현대경제연구소	1040원 (잠정)	90달러(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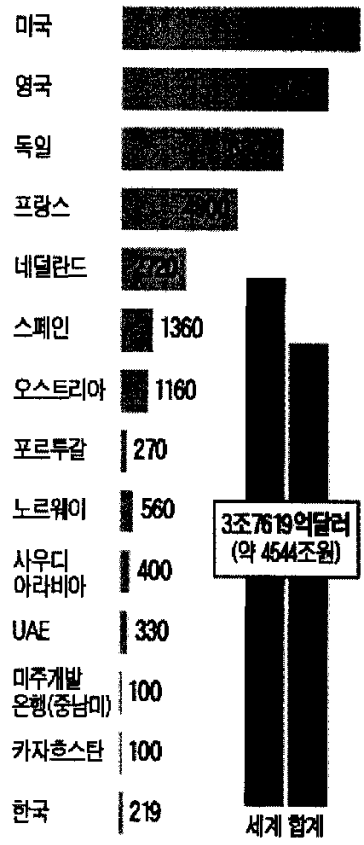
조선일보

朝鮮日報 2008년 10월 15일 a03면

❶부동산 추가 하락 ❷재정적자 급증 ❸신흥시장 불안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각국의 구제금융 규모 단위:억달러

부실 금융회사 자본 매입, 대출 지급보증, 부실 채권 매입, 유동성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한국은 외화유동성 지원 150억달러,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8조3000억원을 합한 금액임. 10월 14일 현재 기준.



● 남은 3大 변수

미국이 총 1조달러, 유럽이 2조달러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채 마무리되기까지는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① 추가 부동산가격 하락

올해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Krugman) 프린스턴대 교수는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집값이 20~30%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계 경제의 위기는 부동산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가 촉발했다. 비록 각국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부동산가격이 추가로 급락할 경우 또 다른 추가 부실이 생기고 이것이 다시 금융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②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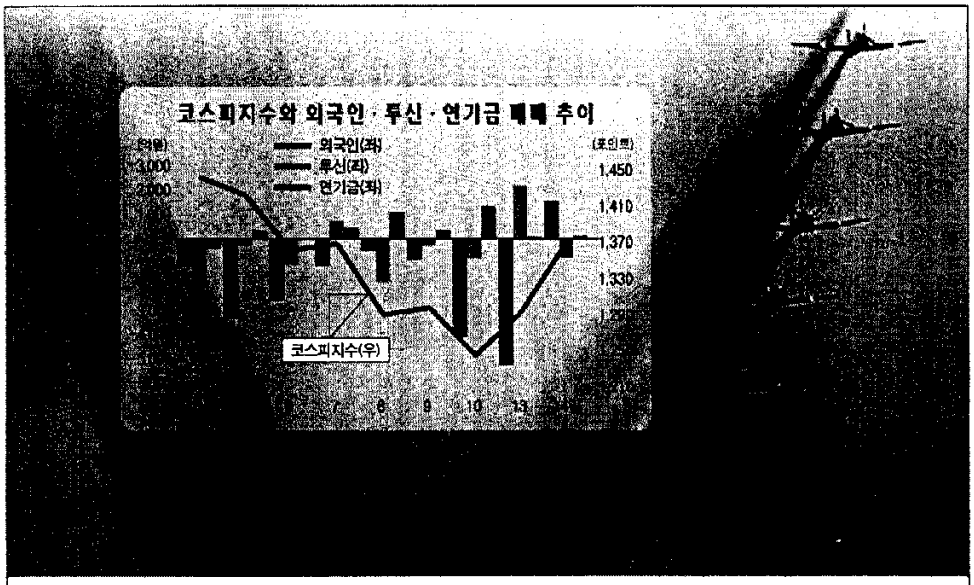
총 370억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3대 대형 은행의 국유화 조치로 영국은 누적 공공 부채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GDP의 100%에 달할 전망이다. 2차대전 직후 전쟁비용을 갚느라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독일도 재정적자를 오는 2011년까지 균형 재정으로 돌려놓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허리띠를 졸라매 왔으나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미국도 이번 구제금융 조치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4380억달러)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내년에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이들 국가들이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하기 어려워진다.

③ 아직 불안한 신흥시장

미국과 유럽 각국이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신흥시장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선진국 자본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흥시장을 탈출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외환위기를 맞는 신흥시장 국가들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현 리서치센터장은 "제조업 고도화가 되지 않은 채 원자재로 호황을 누린 국가들의 경우 경기 침체로 상품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데다 외국 자본들마저 빠져 나갈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경희 기자 khkang@chosun.com
파리=김홍수 특파원 hongsu@chosun.com

서울경제 2008년 10월 15일 a19면



외국인 이달들어 첫 "사자"… 연기금 연일 매수…

증시 수급 숨통 트이나

외국인 매도 공세 다소 완화 기대감 '솔솔'

주식형 펀드 자금 이탈에 투신권은 순매도

전문가 "경기악화로 단기간내 개선 힘들것"

외국인이 10월 들어 처음으로 '사자'에 나서면서 증시폭등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수급악화에 시달렸던 국내 증시 주변에서는 수급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경기악화 ▲펀드 환매 압박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급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14일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이 1,382억원어치를 '나홀로' 순매수하며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전날에 비해 6.14%, 7.15%나 급등한 1,367.69포인트와 396.32포인트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의 달러 무제한 공급과 2조달러에 달하는 유럽 각국의 공적자금 투입 결정, 미 재무부의 은행지분 매입 착수 등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공조가 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했다.

특히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매도공세 약화에 따른 수급개선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외국인은 지난 9월30일 이후 9거래일간 모두 2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증시를 압박해왔다.

외국인은 주로 전기전자(1,540억원), 운수장비(515억원), 증권(380억원)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날 순매수로 급격한 수급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장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수급의 균형을 깨뜨렸던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다소 약화될 기대감은 가질 만하다"며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매는 관행적으로 펀더멘털과 괘를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매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관은 이날 1,470억원어치의 프로그램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투신권의 '팔자'세로 현물시장에서는 16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그동안 하락장에서 비팀목 역할을 해온 연기금은 이날도 순매수를 보이며 매수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을 높였다. 연기금의 경우 9월부터 이날까지 순매도를 기록한 날은 단 이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600억원에 그치는 등 매수 탤리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투신권의 상황은 다르다. 투신권은 이날 기관 순매도를 이끌었다. 주식형 펀드에서의 환매 행렬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수급개선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협회와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10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총 944억원이 순유출(상장지수펀드 제외)됐다. 전일(1,139억원)보다 순유출 규모는 줄었지만 3거래일 연속 자금이 계속 나가면서 10월 들어서만 총 1,890억원이 빠져나갔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도 968억원이 순유출돼 국내 펀드와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 자금이 이탈했다.

약세장에서도 소규모로나마 자금 유입이 이뤄졌던 주식형 펀드에서 반등이 조금만 더 지속될 경우 자금 이탈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펀드의 환매는 곧 투신권의 매도세 강화로 이어져 결국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004년 이후 중장기 투자자는 1,300~1,400선 사이에 22.5%가량이 몰려 있다"며 "이 지수대에서 향후 3조~4조원가량이 유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도 "기본적으로 유동성 경색으로 주식자산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투신권의 환매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때 수급 압박이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이상훈기자 fist@sed.co.kr

증시 이어 외환시장서도…

국민연금의 '백기사 본능'

보유 美국채 200억弗… 70억弗 이달중 한은에 매각 추진

증시 폭락장에서 '백기사' 역할을 톡톡히 해온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외환시장에서 백기사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에서 보유 중인 달러자산(미국국채)을 한국은행에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늘어나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민연금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국채 중 70억달러가량을 한국은행에 매각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또 기금운용 상황과 외환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 매각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달 중 70억달러가량의 미국국채를 원화를 받고 한국은행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05년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한 이후 꾸준히 한국은행의 미국국채를 사들여왔다. 현재 보유 중인 미국국채는 200억달러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미국국채를 매각하더라도 당장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만큼 심리적 안전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지난 3분기 기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2397억달러여서 국민연금으로부터 미국국채를 사들인다면 2467억달러로 증가한다.

시중은행 한 외환딜러는 "그동안 환율이 급등한 것은 수급보다는 심리적 측면의 영향이 더 컸다"며 "실제 매각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가용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그동안 보유 중인 미국국채를 대차거래에 활용, 1400억원가량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연 기자 sylim@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22면

과거 대폭락후 상승장 모습은

"올라서 좋기는 한데 지난 5월처럼 잠깐 반등에 그치는 건 아닐까."

코스피지수가 이틀간 급등세로 돌아서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증시에 불안감이 더 큰 상태다. 지난 3월에도 저점을 찍고 반등하리라 기대했던 지수가 5월 이후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과거 폭락 이후 반등장 비교

구 분	외환위기	카드대란	현 금융위기
고점 대비 하락률	-75.4%	-45%	-40.5%
주가 조정 기간	3년11개월	1년9개월	11개월
반등장 상승률	270%	82.70%	?
반등 기간	14개월	13개월	?
기업이익 전망치 저점	98년 7월	2003년 7월	하향 조정 중
거시 정책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금리 하락세	2003년 콜금리 두 차례 인하	글로벌 금리 인하 동조

반등→하락→반등→하락… '바닥' 안심 이르다

증시 저점 징후를 찾기 위해 과거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폭락 당시 상황을 현 시황과 비교해 봤다.

◆과거 반등장과 유사

대폭락 이후 반등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선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경제가 고장난 만큼 쿤제의 심각성이 지수에 반영돼야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금융위기는 낙폭과 조정 기간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금융위기로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40.5% 하락했다. 외환위기(-75.4%)와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카드대란(-45%) 당시 낙폭과 얼추 비슷한 수준이다. 주가 조정 기간도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다는 평가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기업가치도 싸졌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 전체 추정기업의 46%에 달하고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해 폭지에서 12배였지만 이제 9배로 낮아졌다.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급증한 것도 과거 바닥에서 나타났던 전형적인 움직임으로 꼽힌다. 과거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당시에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은 바닥 국면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외환위기로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98년 6월, 기업이익 전망치 저점은 그보다 한 달 뒤인 7월에 바닥을 찍었다. 카드대란 당시에도 주가가 바닥을 찍은 뒤 4개월이 지나서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최저점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4년가까이 조정후 270%↑

카드대란 21개월 하락후 82% 올라

소장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98년에도 3·4분기 이익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생각보다 실제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4분기 실적이 다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면서 "증권 애널리스트 미래 전망치에 현재의 비관적인 시각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가 나올 때 반등장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고 증권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과거 반등장이 올 때마다 빠지지 않은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나타났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수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17.1%까지 급등했던 금리는 연말이 되자 7.2%까지 떨어지면서 반등의 계기가 됐고 카드대란 당시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콜금리가 인하된 것이 힘을 보탰다.

◆V자형 반등 VS 당분간은 횡보

이처럼 반등장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유는 뭘까.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나 기업실적 하향 조정 등 과거 반등장에서 나타났던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이는 추가 하락을 막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강한 반등을 담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다. 김학균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강한 반등보다는 IT 버블 이후 나타났던 횡보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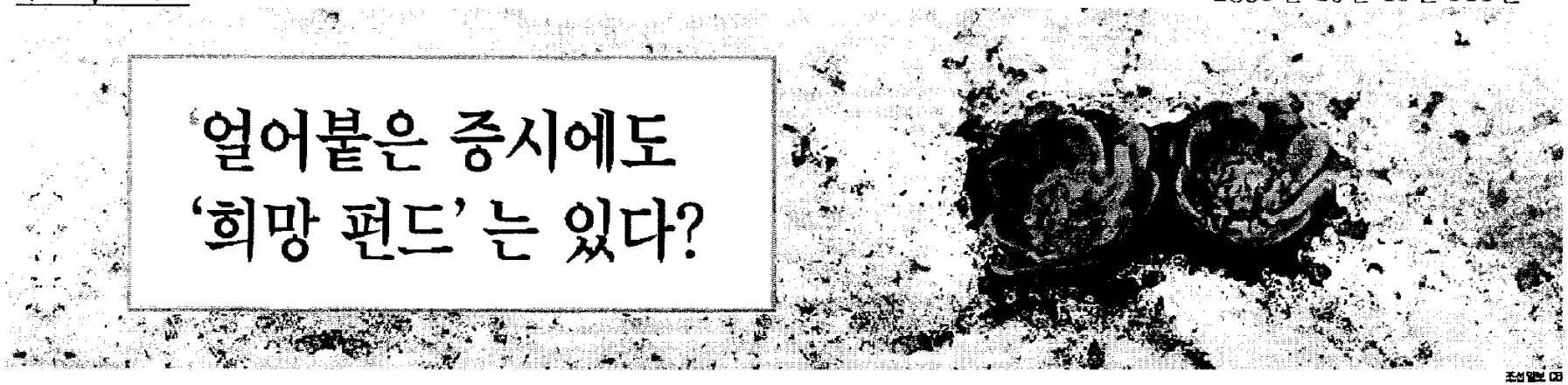
소장호 연구원도 "환율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통한 증시 부양책을 쓰기가 부담스럽다는 점도 과거와 비교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

또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급등은 워낙 불안감이 컸던 만큼 호재에 대해 크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술적 반등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화 기자

朝鮮日報

2008년 10월 15일 b11면

'얼어붙은 증시에도 '희망 펀드'는 있다?



조선일보 DB

주요 가치주펀드 수익률 (%, 13일 기준)

펀드명	운용사명	3개월	6개월	연초 후
동부The Classic전주칮기주식 1ClassA	동부운용	-19.13	-27.65	-27.67
Tops Value 주식 A	SH운용	-18.35	-28.59	-29.26
칸서스하베스트멀티주식 1C-B	칸서스운용	-16.91	-27.73	-29.48
프랭클린템플턴그로스주식형 5	프랭클린템플턴	-17.11	-28.52	-32.34
신영마라톤주식(W형)	신영운용	-18.98	-27.41	-32.36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주식 1	한국밸류자산	-24.85	-28.79	-32.88
푸르덴셜Value포커스주식 1B	푸르덴셜운용	-21.86	-28.95	-32.98
알리안츠GI기업가치향상장기주식G 1(C/A)	알리안츠운용	-19.38	-29.55	-33.33
미래에셋가치주주식G 1CLASSA	미래에셋자산	-18.76	-30.17	-33.86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 1	한국밸류자산	-24.54	-29.16	-34.30
동양밸류스타주식 1ClassA	동양운용	-19.75	-30.07	-34.71
농협CA아이사랑적립주식 1	NH-CA운용	-20.55	-30.92	-34.79
일반주식펀드 평균		-18.92	-30.38	-33.75

제로인, 연초 후 수익률 순

주요 배당주펀드 수익률 (%, 13일 기준)

펀드명	운용사	3개월	6개월	연초 후
프런티어배당한아름주식CLASS C 1	우리CS운용	-14.53	-20.92	-24.83
그랑프리포커스배당주식 1C클래스	가은SG운용	-13.31	-22.51	-26.01
마이다스백년대계적립식주식	마이다스운용	-16.10	-22.86	-27.24
신영밸류고배당주식 1 C4	신영운용	-18.58	-23.75	-27.96
한국셀렉트배당주식 1(C)	한국운용	-13.14	-19.81	-28.13
미래에셋3억만들기배당주식 1(CLASS-A)	미래에셋자산	-15.92	-24.79	-29.74
알리안츠고배당주식G- 1(C/A)	알리안츠운용	-17.32	-24.05	-29.75
하나UBS배당80주식 1 종류C	하나UBS	-16.65	-25.80	-30.98
삼성배당주장기주식종류형 1_A	삼성운용	-15.37	-27.68	-32.59
산은하이디배당주식 1ClassC 1	산은운용	-17.33	-28.47	-33.78
마이다스블루칩배당 1 A1	마이다스운용	-20.15	-28.72	-34.32
프러스티지고배당주식 1	신한BNPP운용	-17.59	-31.19	-35.25

제로인, 연초 후 수익률 순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주저되는 때이다. 최근 이틀 새 주가가 급반등하긴 했지만 아미 거의 모든 자산들이 상당 수준의 가치 손실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가적인 가치하락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해 있다. 주식과 이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흠련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안타'를 자주 때리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바닥'으로 판단하고 펀드 투자에 나서려는 투자자들도 대세 상승이 확인될 때까지는 저평가된 가치주(株)에 오랫동안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가치주 펀드와 연말 배당수익이 예상되는 배당주펀드 등에 우선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길게 보면 보인다

저평가주·자산주 등에 장기투자 하는 가치주펀드로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수탁액은 1조 3540억원으로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하기 전인 지난 8월 말보다 190억원 증가했다. 신영투신의 수탁액도 4조4460억원으로 이 기간 80억원 늘어났다. 한국밸류와 신영투신은 각각 '10년투자주식'과 '마라톤주식' 등 중소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자산운용사 전체 수탁액은 363조2110억원에서 352조343억원으로 10조 원가량 감소했다.

가치주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국내주식형 평균보다는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6개월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수익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 14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34개 가치주펀드의 6개월 수익률(-29.06%)은 일반주식펀드 유형평균(-30.38%)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1년 평균수익률에서도 가치주펀드가 유형평균을 1.21%포인트 앞섰다.

●가치주펀드

저평가된 종목에 장기투자 길게 볼수록 수익률 좋아

●배당주펀드

배당금 챙길 수 있어 안정적

서용원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를 당분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으며 이 중 가치주(Value stock)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치주펀드들의 경우 투자하는 종목이 펀드마다 달라 수익률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덤으로 얻는 배당주펀드 투자

주가는 변화가 심해 미래의 수익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배당금은 고정적이어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배당주펀드는 이런 배당수익이 높은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예상 배당수익률보다 투자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종목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반면 투자종목의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배당시점까지 보유해 배당수익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요즘 같이 불안한 장에선 배당주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며 수익률 방어력이 높은 편이다.

6개월 평균수익률을 봤을 때 33개 배당주펀드(-26.5%)가 일반주식형펀드(-30.38%)를 3.88%포인트 앞질렀다. 1년 평균수익률도 배당주펀드가 일반주식형 펀드보다 3.07%포인트 우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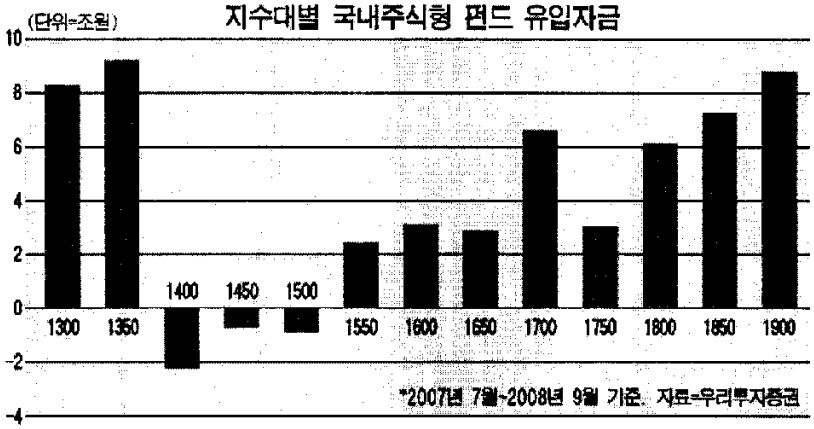
김순영 대신증권 펀드연구원은 "최근엔 배당수익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종목을 발굴해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배당주펀드들도 많아지는 추세다"며 "배당주펀드 중에도 투자종목 제한 등의 이유로 시가배당률(배당기준일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 낮은 펀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주식형 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23면

코스피가 이틀 연속 강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고민에 빠진 투자자가 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하락장이 이어지자 공포심이 극에 달해 환매를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었으나 최근 급등장을 보면서 '더 기다려볼까' 싶어 갈등하고 있는 것.



□ 이틀째 강세… 펀드투자자 어떻게 할까

성급한 환매 말고 더 기다려라

일선 PB들은 13일과 14일 주가 급상승으로 환매를 결정했던 투자자들도 잠시 보류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등장을 이용해 지금 환매를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좀 더 기다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금 환매한다면 이미 커버린 손실폭을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펀드 투자로 발생한 30~40% 전후 손실을 회복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과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도 환매 자제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지금 환매에 나서지 않더라도 환매에 대한 원칙 등은 세워 놓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환매 갈등하는 투자자 많아

환매를 고민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고규현 삼성증권 FN갤러리아지점 과장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손실폭에 상관없이 환매에 나서는 고객도 있었지만 이틀째 시장이 급등하자 환매 문의 자체는 줄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장기간 투자를 통해 수익이 확보된 고객 사이에는 변동성이 큰 장이 지속되면 환매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대부분은 코스피 1800~2000 사이에서 투자했다. 이 지수대에서 펀드로 유입된 자금만 35조원이 넘는다. 장기투자자들이 1300~1400선에서 가입한 금액(17조원)의 배가 넘는다.

즉 대부분 투자자의 손실폭이 30% 내외로 추정된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손절매를 하자니 아쉽고 또 그렇다고 손실폭 회복을 기대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불안감을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는 셈이다.

◆환매 원칙부터 세워라

전문가들은 당장 환매에 나서는 것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을 모두 잃을 수 있어 주의하는 게 낫다고 설명한다.

이재경 삼성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현재 손실폭을 만회할 만한 다른 대안 역시 마땅치 않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즉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이 어려울지는 몰라도 또다시 급락장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실폭이 가장 큰 상황에서 환매하는 '악수'를 피하라는 얘기다.

지금 환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스스로 환매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낫다. 이는 시장이 단기 반등을 거친 후에는 한동안 횡보를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깔려있다. 환매를 결정할 시점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언제든 환매 기회를 놓치고 투자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미경 하나대투 웰스케어센터장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환매할 것인지를 정하고 또 환매를 한다면 어떤 펀드를 어느 정도 손실폭에서 할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 손실폭이 크더라도 환매하고 다른 방식 투자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재경 팀장은 "3~4년 정도를 보고 원금 회복을 꾀하는 투자자라면 채권으로 자금을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PB는 "손실이 난 펀드를 환매해 대형 우량주를 사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 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27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펀드 손실 최소화 요령'

환매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국내 주식형·선진국 상품 관심

코스피지수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펀드 환매나 추가 납입을 고민하는 펀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큰 손실로 마음고생을 했던 거치식 투자자 중 상당수가 이번 반등장에서 손실을 줄여 환매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만큼 자금 사정이 급하지 않다면 아무리 손실이 크더라도 가급적 환매를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김정환 우리투자증권 재무컨설팅 팀장은 "급한 돈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일부를 환매해 현금화해야 하겠지만 주식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지난 만큼 불안심리만으로 환매했다가는 손실 만회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로 역사상 저점에 가깝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접근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손실을 본 적립식 투자자라면 지금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권했다.

펀드전문가들이 권하는 반등장 대처법

-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환매하지 마라
- 적립식 투자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해 매입단가를 낮춰라
- 신규투자자라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해라
- 과도한 이머징 펀드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형펀드 비중을 늘려라
- 자원부국 펀드는 피하고 선진국 분산투자 펀드 비중을 늘려라

전문가들은 또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해외펀드 비중이 높은 데다 특정 지역에 자금이 몰려있는 만큼 이번 반등장에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아직도 전체 해외펀드 투자금액의 45%가 중국에 쏠려있다"며 "과도하게 높은 특정펀드의 비중을 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대우증권 펀드리서치팀장도 "부분 환매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펀드로는 국내 주식형과 선진국 위주의 상품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김대열 팀장은 "국내 상품은 다소 공격적인 전략으로 선회해 반등시 상승여력이 큰 대형주 중심의 성장형펀드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삼성증권 펀드리서치파트장도 "해외보다는 국내 펀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안전하며 국내 상품은 우량주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오온수 연구원은 가치주펀드와 배당주펀드 등 안정적인 상품을 추천했다.

해외 상품에선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부국 상품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선진국 중심의 분산상품으로 갈아타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중국은 추가 하락 위험이 적고 경기부양책 등 긍정적 요인이 있어 이머징펀드 중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다는 평가다.

김태완/박혜영 기자 twkim@hankyung.com

서울신문 2008년 10월 15일 003면

이젠 펀드런 걱정?

환매로 3조~4조원대 이탈 가능성
"본격 상승세땐 되레 유입" 분석도

증시가 올랐다고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주가가 폭락할 동안 끙끙대며 마음고생 하던 펀드투자자들이 아예 펀드를 털어버릴지도 모를 상황이 온 것이다. 증권가는 주가가 바닥을 치는 것으로 여겨 다시 자금 유입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14일 급등장에서도 투신권은 792억원을 순매도한 것도 고객들 환매 요구에 대비한 실탄 축적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일부에서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국내주식형펀드(ETF제외)는 10월 들어서만 10일 기준으로 1890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중국 증시 침체로 인기를 잃은 해외주식형 펀드는 8·9월에 이어 10월에도 1971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우리투자증권이 14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코스피지수 1300~1400선대에 주식형펀드 투자자금의 22.5%인 17조 2000억원이 몰려 들었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체제가 속도를 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10월 중에는 1400대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맞다면 17조 2000억원대의 자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30~40%정도만 빠져나간다고 가정하면 5조원대의 돈이 환매될 수 있는데 이미 1조원대가 빠져 나간 상황이라 추가로 3조~4조원대가 나갈 수 있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한 증권사 관계자는 "MMF나 CMA 등에서 대기하는 자금이 많아 일부에서는 이자부담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금융경색이 풀린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 유동성이 증시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머니투데이 2008년 10월 15일 030면

구제금융 단기약발에 펀드런?

작년 하반기 1800 이후 21조원 유입
장기투자 추세 대규모 환매 없을 듯

국내증시의 단기반등으로 손실폭을 줄인 투자자들이 펀드환매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지수대와 적립식 투자 문화 정착 등을 고려하면 펀드런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3조달러가 넘는 대규모 구제금융안에 힘입어 13일 글로벌 증시는 유례없는 급등세를 연출했다. 골이 깊었던 만큼 산도 높자 이를 기회삼아 환매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은 14일 코스피 1300~1400선에서는 최대 3조~4조원가량의 펀드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코스피가 4년간 상승세를 나타낸 기간을 2004~2006년과 주식형펀드가 급성장한 2007년 이후로 나눠 국내 주식형펀드의 매물대를 분석한 결과 2004~2006년 코스피 1300~1400선에 전체 펀드금액의 22.5%인 약 17조 2000억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연·강현철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주식투자를 해온 투자자 중 30~40% 내외가 주식을 판다고 가정하면 1300~1400대에서 약 5조1000억원이 유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9, 10월 주식형펀드에서 유출된 약 1조1000억원이 이에 해당하며 앞으로 약 3조~4조원이 추가 이탈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은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1800~1950선에서 49.3%(21조9000억원)의 자금이 몰렸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대와는 거리가 있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립식펀드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추가 하락하면 매입평균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적립식투자 비중이 전체 주식형의 45%를 차지하고 장기투자문화가 자리잡는 추세여서 펀드런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무엇보다 주식형 환매율(환매액/펀드자산)은 9월 현재 국내주식형 2.5%, 해외주식형 3%로 소폭 상승 중이나 미국 주식형펀드 1년 월평균 환매율 2.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국내외 증시 반등국면에서 환매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신규자금 유입 확대로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증권은 △펀드수익률 악화 원인이 국내가 아닌 해외 펀더멘털 변화여서 글로벌시장 안정시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과 △IMF 당시 낮은 가격에 환매해 더 큰 손실을 본 경험 △전체 주식형펀드 설정액의 3.5%인 3조원에 불과한 펀드담보대출 등으로 펀드런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황소 잡는 펀드(강세장 수익률 상위: 2007.1.2~11.1) 〈단위:억원, %〉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순자산	수익률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미래에셋자산	2001. 7. 6	17,150	84.49
삼성배당주장기주식종류형 1_C	삼성운용	2005. 5.10	4,309	84.10
미래에셋드림타겟주식형	미래에셋자산	2003.11. 3	1,234	79.67
동부The Classic진주찾기주식 1ClassC1	동부운용	2006. 7.21	204	78.58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주식K-1	미래에셋자산	2005. 1.18	23,131	78.16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종류형 1A클래스	삼성운용	2007. 1. 2	2,403	78.05
우리SK그룹우량주플러스주식 1-A1	우리CS운용	2006.12.21	284	77.26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종류형 1C클래스	삼성운용	2007. 1. 2	1,384	76.49
우리SK그룹우량주플러스주식 1-C1	우리CS운용	2006.12.21	459	76.14
한국투자네비게이터주식 1class A	한국운용	2005.12.20	3,545	74.28

곰 잡는 펀드(약세장 수익률 상위: 2007.11.1~08.3.18) 〈단위:억원, %〉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순자산	수익률
IT ETF	우리CS운용	2006. 6.26	149	-8.46
류10년투자연금주식 1	한국밸류자산	2007. 3.19	515	-9.51
ODEX반도체상장지수	삼성운용	2006. 6.26	272	-9.83
셋TIGER SEMICON상장지수	미래에셋맵스	2006. 6.26	245	-9.89
밸류10년투자주식 1	한국밸류자산	2006. 4.18	10,526	-11.92
스물류주식증권(C/C 1)	유리운용	2007.10.12	109	-12.01
유리스물류티주식 A	유리운용	2007. 5.14	353	-12.28
유리스물류티주식 C	유리운용	2004. 8.16	1,009	-12.43
삼성KODEX자동차상장지수	삼성운용	2006. 6.26	124	-13.04
신영밸류고배당주식 1 C4	신영운용	2007. 4.17	209	-13.87

게 잡는 펀드(횡보장 수익률 상위: 2008.7.10~10.6) 〈단위:억원, %〉

	운용사	설정일	순자산	수익률
주식 2(C-i)	한국운용	2006. 4. 4	126	-1.14
립주식 2(A)	한국운용	2007.10.17	2,367	-1.14
한국투자삼성그룹적 식주식 2(C-e)	한국운용	2007.10.25	135	-1.18
Tops Value 주식 A	SH운용	2007. 5. 8	3,280	-1.24
한국투자부자아빠삼성그룹주식 1(C형)	한국운용	2004. 7. 6	1,620	-1.27
한국투자삼성그룹주식형-자(A)	한국운용	2006. 4.24	1,170	-1.27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 2(C)	한국운용	2007.10.17	1,519	-1.30
한국투자삼성그룹주식형자(B)	한국운용	2005.11. 1	921	-1.31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 1(A)	한국운용	2004. 1. 1	27,774	-1.40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주식 1(C)	한국운용	2004. 7.20	2,180	-1.41

〈자료 제공인 www.fundoctor.co.kr〉

줌 인 **장세따라 궁합맞는 펀드 따로 있다**

투자를 다시 시작할 시기가 왔다.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초강경안을 내놓으면서 쓰러져가던 시장이 다시 일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물려 있는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손실폭을 보다 빨리 만회할 기회이자 새로 펀드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등 랠리를 즐겨볼 만한 타이밍이다. 하지만 같은 펀드라도 업연히 체질이 다르게 마련이다. 강세장에서 강한 펀드가 있는 반면, 약세장에서 선방하는 펀드가 있고, 지루한 박스권 장세에서도 수익을 내는 펀드도 있다.

황소잡는 미래에셋 곰잡는 섹터ETF 게잡는 그룹주

그런 만큼 상황별로 적절한 펀드를 준비해 놓지 않다간 '병졸을 베려고 언월도를 쓰는 격'이나 '한겨울에 성낭개비 하나 든 꼴'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이후 시장 상황별로 잘한 펀드들을 살펴봤다.

▶황소(강세장) 잡는 펀드!…미래에셋!=지난해 1월부터 11월 초까지 유례없는 강세장이 펼쳐졌을 때 잘한 펀드들의 특징은 딱 '사자성어(?)'로 정리된다.

바로 '미래에셋'이다. 10개월 동안 1434포인트이던 코스피가 2064포인트까지 43.95% 올랐을 때 미래에셋의 디스커버리주식형 펀드는 84.49%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시장을 거의 배 가까이 이긴 셈이다.

드림타겟이나 3억만들기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 플래티늄랩, 솔로몬성장주식 등 많은 미래에셋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을 30%포인트나 앞섰다.

미래에셋만큼이나 삼성운용도 강세장에서 이름값을 했다. 배당주장기주식펀드나 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 당신을위한리서치주식펀드 등도 시장을 크게 앞섰다.

만일 시장이 다시 강세장 양상을 보인다면 이런 펀드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 곰도 잡아본 놈이 잡는다.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펀드의 덩치를 불리는 동시에 수익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상황은 지난해와 좀 다르다. 지난해 강세장을 주도했던 조선·철강업종의 업황이 전만 못하고, 시중의 유동성도 약화돼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용사가 가진 강점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단기 반등에 그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풍부한 시장 유동성, 기업실적 호조 등 선순환 구조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제값 찾기 차원의 랠리를 보일 경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으로 베어스턴스가 문을 닫았던 올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가 바로 그랬다.

당시의 수익률 상위 펀드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인덱스펀드다. 반등 양상이 시장 전반에 골고루 나타나는 데다 랠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상품들이 적합할 수 있다. 보수가 싸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곰(약세장) 잡는 펀드!…섹터ETF, 가치투자펀드!=반면 시장이 한동안 약세장이 지속된다면 역시 안정성과 유연성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글로벌 증시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11월부터 베어스턴스 사태가 일단락된 올해 3월 중순까지를 살펴보면 섹터ETF 상품과 가치투자 성향의 펀드들이 수익률 상위를 점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장이 23% 이상 급락하는 와중에 가장 수익률이 양호했던 상품은 우리CS운용의 KOSEF IT ETF다. 전기전자 영역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다. 유사하게 투자하는 삼성KODEX반도체나 미래에셋의 TIGER SEMICON도 수익률 상위 5위 이내에 올라 있다.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업황과 기업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IT섹터로는 돈이 몰려 들었다는 이야기다.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로 금융 불안이 지속돼 약세장이 될 경우 역시 상대적으로는 업황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좋을 수 있다. 특히 보수가 싸고 현금화하기 좋은 ETF들이 적합하다.

한국밸류10년펀드로 대표되는 가치주 펀드들도 약세장에서 선방했다. 가치투자펀드들을 고를 때는 상품을 보고 고르기 보다는 운용사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낫다.

가치투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CEO나 운용책임자의 투자 철학이 명확한 회사일수록 펀드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 색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밸류운용, 신영특신운용, 유리자산운용 등이 국내에서는 이에 해당한다.

▶게(횡보장) 잡는 펀드!…그룹주펀드!=장이 지루한 게걸음 양상을 보일 때는 역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올 7월 초부터 10월까지 지수가 200포인트 이내의 박스권을 형성했을 때를 보면 역시 '선택과 집중'형 펀드들의 강세가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운용의 삼성그룹주 펀드다. 이 기간 수익률 상위 펀드 10개 가운데 무려 9개는 삼성그룹주 펀드의 클래스 펀드들이다. 3개월여 동안 시장이 10.5% 하락하는 와중에 삼성그룹주 펀드들은 -1%대의 하락률을 보였다.

시장이 지루하게 방향성을 모색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유동성이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에 몰려들게 된다. 그런 점에서 다소 불필요한 종목들을 제거하고 투자영역을 슬림화한 상품들이 강점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삼성그룹주 펀드의 경우 3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나 투자 기업들의 대표성을 감안한다면 시장 상황 안정 후 찾아올 랠리의 혜택도 노려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런 논리는 펀드시장의 대표적인 '황소 사냥꾼' 미래에셋을 봐도 알 수 있다.

횡보장 수익률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미래에셋 펀드는 5대 그룹대표주주식펀드 단 한가지뿐이다. 역시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해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형 기업들에만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헤럴드경제

朝鮮日報

2008년 10월 15일 b04면

금융위기 한달

돈 들어온 펀드, 돈 나간 펀드

국내 주식형펀드 447억원 순유출
펀드 규모 클수록 돈 많이 빠져나가
해외주식형은 개인 나가고 법인 들어와

미국과 유럽의 공조로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전 세계 주가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증시를 동반 추락시키면서 최근 펀드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더 이상 손실을 감내하지 못하고 환매에 나선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펀드런'(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펀드를 환매하는 사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실제로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도 약 1900억원의 순유출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은 지난 4·5월 이후 처음이다. 그렇다면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져온 금융위기 국면에서 어떤 펀드로 돈이 들어오고, 어떤 펀드에서 돈이 나갔을까.

◆수익률 영향은 미미, 인덱스·가치주 펀드가 상대적으로 양호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증시를 덮친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447억원의 자금이 순유출(환매액에서 신규설정액을 뺀 것)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국내 주식형펀드는 교보악사운용의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1-B'로 약 533억원이 순유입(신규설정액에서 환매액을 뺀 것)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K-2ClassA'와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5C-A'가 각각 313억원과 267억원씩 펀드 규모가 늘어났다.

반대로 같은 기간 자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솔로몬주식1'으로 약 439억원이 순유출됐고, 다음으로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2'와 한국투신운용의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1(A)'이 각각 285억원, 281억원씩 순유출을 기록했다.

자금 유·출입 상위 펀드들을 살펴보면 신규 설정 혹은 환매 여부에 최근 수익률은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이 순유입된 상위 12개 펀드 중에서 코스피지수 하락률 13.7%보다 나은 성적을 거둔 펀드는 4개에 불과했다. 오히려 자금이 순유출된 상위 12개 펀드 중에서는 7개가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했다.

다만 펀드 규모가 클수록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순유출이 많았던 상위 6개 펀드 모두 순자산액이 1조원 이상인 데 반해, 순유입 상위펀드 중엔 20위 안의 단 1개 펀드만 순자산액이 1조원을 넘었다.

제로인 이수진 펀드애널리스트는 "금융위기 국면에 연금펀드, 가치주펀드, 인덱스펀드처럼 장기투자 매력이 있는 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오기도 한 반면, 성장주펀드나 운용사 성과가 좋지 않았던 펀드들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해외주식형은 법인은 들어오고, 개인은 나가고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는 금융위기가 불거진 이후 한 달 동안 약 6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순유출, 순유입 모두 중국, 브릭스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대부분이었다.

자금이 추가로 유입된 펀드들을 살펴보면 상위에는 법인이나 기관, 혹은 거액 개인투자자가 투자하는 I, C2 클래스 등이 주를 이뤘다. 상위 10개 펀드 중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린 것은 금융주에 투자하는 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UBS글로벌금융주의귀환주식ClassA' 정도로 약 41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클수록 자금 유출이 많았다. 순유출 상위 10개 중 절반이 순자산 1조원 이상이다. 슈로더투신운용의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A-1'이 734억원으로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1종류A',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봉쥬르차이나주식2종류A'가 각각 496억원, 452억원씩 순유출이 이뤄졌다.

삼성증권 이재경 펀드리서치팀장은 "규모가 큰 펀드의 경우 펀드설정 초기에 들어가 손실이 크지 않거나,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고객 중심으로 최근 환매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 최근 반등폭도 지난 한 주간의 손실을 겨우 만회한 수준이기 때문에 환매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재곤 기자 truman@chosun.com

국내주식형 자금 유입 상위펀드(억 원, %) (자료: 제로인, 설정된 지 3개월 이상, 9월 16일~10월 13일 기준)

펀드명	순유입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 1-B	533	-14.78	-19.05	-28.75	-35.29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K- 2Class A	313	-13.92	-19.31	-31.24	-39.50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5C-A	267	-13.92	-19.40	-29.86	
PCA베스트그로쓰주식I- 4	196	-13.53	-16.48	-28.04	-36.29
미래에셋드림타겟주식형	183	-14.08	-19.10	-29.97	-35.90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 1	127	-13.75	-19.42	-28.26	-37.00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 2(C)	113	-11.06	-13.70	-25.64	
하나UBS인베스트연금주식S- 1	92	-11.92	-18.18	-30.30	-37.76
Tops Value 주식 A	86	-16.77	-18.35	-26.59	-32.13
미래에셋우리아이적립형주식G K- 1	73	-12.00	-15.53	-26.14	-33.40
KB코리아인덱스파생상품(Class-A)	66	-14.59	-18.90	-28.75	-35.25
신영마라톤주식A1	60	-16.72	-22.09	-30.72	-38.18
국내주식형펀드 전체(수익률은 평균)	-447	-13.70	-18.55	-29.69	-3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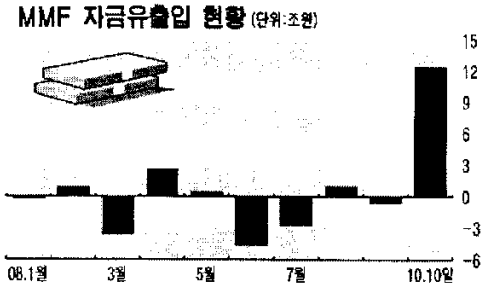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자금 유출 상위펀드(억 원, %) (자료: 제로인, 설정된 지 3개월 이상, 9월 16일~10월 13일 기준)

펀드명	순유출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미래에셋솔로몬주식 1	-439	-13.12	-18.19	-30.21	-38.64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 2(CLASS-A)	-285	-13.80	-19.48	-30.75	-38.95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 1(A)	-281	-11.10	-13.80	-26.14	-33.94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주식K- 1	-264	-14.51	-19.45	-31.12	-40.61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주식K- 1	-263	-13.13	-18.68	-30.83	-37.28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 1	-242	-13.36	-18.88	-30.97	-38.52
Hi-Korea적립식멀티주식K- 1D	-126	-15.27	-20.30	-30.45	-40.37
미래든적립식주식C	-99	-13.62	-17.61	-30.31	-39.58
ING 억만들기주식 1	-93	-14.19	-19.96	-31.73	-41.00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주식 1(C-A)	-83	-13.05	-18.48	-31.20	-39.70
마이다스블루칩배당 1 A1	-71	-15.36	-20.15	-28.72	-38.73
삼성당신을위한리서치주식종류형 1A클래스	-68	-12.14	-18.81	-31.16	-41.42
국내주식형펀드 전체(수익률은 평균)	-447	-13.70	-18.55	-29.69	-38.03

머니투데이

2008년 10월 15일 031면

7일새 12.5조 돈먹는 MMF



국내외 증시 급안으로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들어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12조원 넘는 뭉칫돈이 유입됐다.

14일 자산운용협회와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10월 들어 7일 동안 MMF로 순유입된 자금만 12조5694억원에 달한다. 일평균 유입액은 1조7956억원으로 전체 펀드 중에서 파생상품(106억원)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자금유입세를 보였다. 특히 코스피지수가 1300선 아래로 내려간 지난 8일에만 2조6594억원이 쏟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ETF 포함)에선 5900억원, 해외 주식형펀드에선 1971억원이 빠져나갔다. 설정액 기준으로도 주식형펀드가 1조5000억원가량 감소한 데 반해 MMF는 12조원이 급증해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3분기 결산과 맞물려 기업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MMF에선 13조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했다. '펀드런'(펀드 대량 환매) 우려 속에도 전체 펀드 설정액이 한달 만에 다시 350조원을 웃돈 것은 MMF 설정액이 급증한 덕이다.

김휘곤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MMF 설정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주가 급락으로 안전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며 "주식형펀드 순환매 차원에서 당분간 투자자들의 MMF 선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중앙일보

2008년 10월 15일 e06면

어린이·장기주택펀드도 울상

최근 급락장서 원금 30% 이상 까먹어

내 집이나 아이 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입한 장기주택펀드와 어린이펀드가 올해 원금의 30% 이상을 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29개 내집마련장기주택 주식형펀드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이 -33.7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펀드(15개)도 최근 1년간 평균 33.65%의 손실을 내고 있다.

장기주택펀드 중에는 '삼성장기주택마련대표주식종류형자1_C1' 펀드의 수익률이 -39.32%로 저조했으며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주식형자C-C' 펀드(-34.62%), '하나UBS장기주택마련주식1ClassC' 펀드(-34.48%) 등의 순으로 부진했다. 어린이펀드의 경우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주식형자1자(C-C)' 펀드의 1년 수익률이 -49.59%로, 이 펀드는 원금의 절반가량이 사라졌다. '우리쥬니어네이버적립주식1' 펀드(-37.07%), '농협CA아이사랑적립주식1' 펀드(-36.65%), 'KB켕거루적립식주식' 펀드(-36.23%) 등은 원금의 40% 정도 증발됐다.

이와 달리 자산운용업계는 짭짤한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 2년8개월간 장기주택펀드와 어린이펀드 투자자가 운용사·판매사·사무관리사 등의 기관에 펀드 운용·판매·관리 명목으로 낸 수수료는 총 615억원에 이른다. 최근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자 환매도 늘고 있다. 2006년 이후 장기주택펀드와 어린이펀드에선 총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환매됐다. 신 의원은 "서민의 꿈이 담긴 장기주택펀드와 어린이펀드는 손실액이 커지고 있어 대량 펀드 환매도 우려된다"며 "증시 안정과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펀드시장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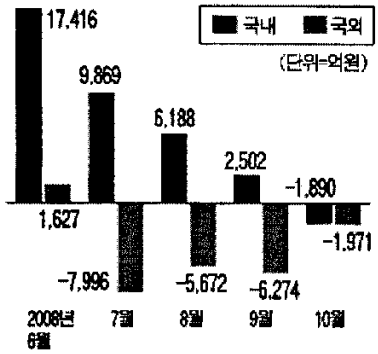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23면

해외펀드에선 환매 지속

국내주식형은 이달 1890억원 유출 그쳐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입 현황



*ETF 설정액은 제외. 10월은 10일 기준.
자료=자산운용협회

14일 국내 및 세계 증시가 급반등하는 가운데 주식형 펀드 환매 추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자칫 환매가 가속화될 경우 반등 탄력은 크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내 증시에선 아직 '펀드런(펀드 대량 환매)'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펀드 환매는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날 때 더 가속화된다"는 입장이다. 14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주식형 펀드는 아직 굳건하게 버티는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에선 이미 환매 랠리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올 들어 국내주식형 펀드는 4월(-3982억원), 5월(-958억원) 순유출이 생겼으며 대부분 매월 평균 9000억원이 넘는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의 경우 10일 현재 1890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했지만 이번주 들어 시작된 반등에 다시 대규모 자금이 국내주식형 펀드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는 7월을 기점으로 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7월에 7996억원, 8월 5672억원, 9월 6274억원 등 순유출 규모도 큰 편이다.

정철진 기자

서울경제

2008년 10월 15일 a20면

해외펀드 환헤지여부 "고민되네"

향후 환율 안정땐 환헤지 유리… 예측 어려워 선택 신중을

'해외펀드 환헤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해외 증시가 연일 10% 가까운 폭등세를 연출하면서 해외 펀드의 수익률 상승이 기대돼 환헤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주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를 때만 해도 환노출형 펀드가 수익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최근 환율이 급격히 안정세를 되찾으며 장중 1,100원대까지 떨어짐에 따라 환헤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마다 펀드 투자스타일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외환도 투자의 선택요소가 된 추세를 감안할 때 환헤지형보다 환노출형이 나을 수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14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환율 급등에 따라 환헤지 유무에 따른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은 환헤지한 펀드의 1년 수익률이 -53.32%인 반면 환노출형 펀드는 -19.8%로 격차가 무려 33.5%포인트나 벌어졌다.

● 환헤지 유무에 따른 펀드 수익률 비교 (단위:%)

펀드명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	환헤지 여부
대신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자 1ClassA	-27.10	-34.37	-38.11	-45.68	O
대신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자 2ClassA	-16.71	-22.75	-24.70	-29.64	X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주식종류형자 1-A	-34.20	-42.52	-44.25	-52.66	O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주식종류형자 2-A	-21.64	-30.03	-30.25	-35.84	X
삼성당신을위한X재팬주식종류형자 1-A	-28.99	-35.96	-35.45	-46.40	O
삼성당신을위한X재팬주식종류형자 2-A	-7.92	-10.14	-11.48	-14.02	X
푸르덴설동남아시아주식자(H)-A	-20.66	-34.32	-41.04	-50.33	O
푸르덴설동남아시아주식자(UH)-A	-6.92	-16.54	-23.44	-32.34	X
프랭클린템플턴재팬주식형자(A)	-30.91	-37.13	-39.04	-47.93	O
프랭클린템플턴재팬플러스주식형-자	-8.90	-9.90	-14.78	-17.20	X

*자료:제로인

최근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같은 수익률 차이는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펀드를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올랐을 때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전혀 누릴 수 없지만 반대로 해당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때(원·달러 환율이 내릴 때)는 손실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율이 크게 올랐다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현재 시점에서 환헤지를 하면 향후 환율이 내려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에도 단기간에 크게 오른 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김지은 슈로더투신운용 마케팅부장은 "요즘 같은 시기에 환헤지에 나서면 환헤지가 추구하는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며 "해외 펀드는 어디까지나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환율 투자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환헤지 유무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환율 변동이 급격하게 이뤄졌고 무엇보다 외환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개인 펀드 투자자들의 경우 향후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환헤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해까지 장기간 저환율 기조가 이어졌을 때 환율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하에 해외 펀드 투자자들의 90% 이상이 환헤지를 걸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손해를 봤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환 움직임을 점치기 쉽지 않은 만큼 섣불리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최근 환율 폭등에서 볼 수 있듯 해외펀드 투자시 환헤지를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며 "환헤지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률 상승 기회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fleit@sed.co.kr

"환매중단 통보만 하면 끝인가"

'리먼 파산' 한달…분통 터지는 투자자들

미국의 금융부실에 따른 해일이 온 세계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사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각종 조처를 잇따라 내놓고 있고, 국제 공조도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형 금융회사를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금융소비자들,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관심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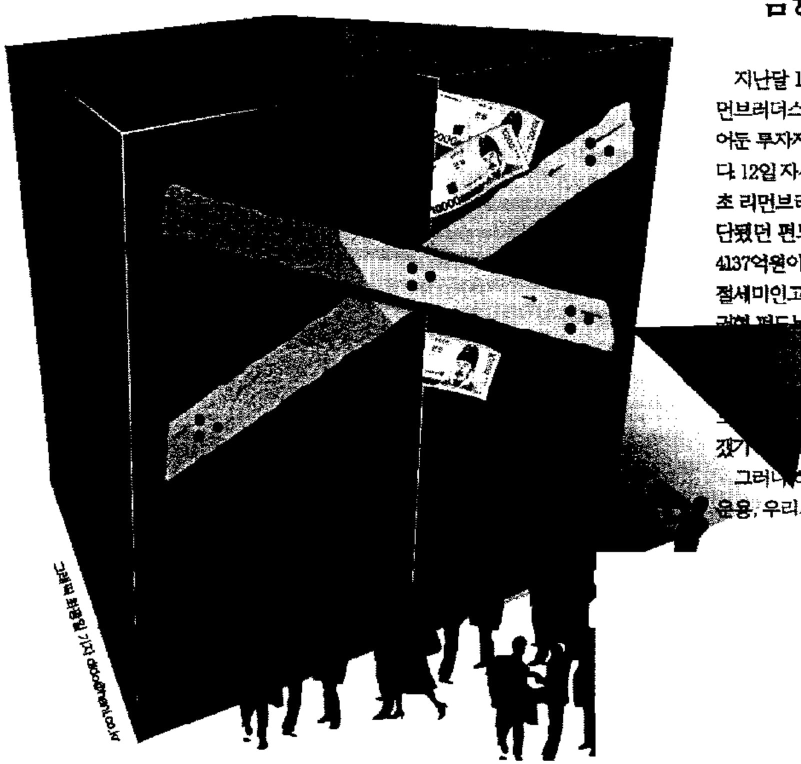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환매 중단된 주가연계펀드(ELF) 현황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설정액	추정 손실액
하나UBS기업은행-삼성중공업주가연계파생	하나UBS	58	42
삼성2Star2Y파생상품 16-1	삼성운용	21	15
우리2Star파생상품 KH-3	우리CS운용	179	220
우리2Star파생상품 KW-6	우리CS운용	281	184
MY DualStar파생상품 D-1	마이애셋	46	498

*추정손실액은 설정액과 자산내 ELS 비중에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 값. 리먼브러더스 파산 절차 결과와 리먼브러더스 아시아 부문을 인수한 노무라증권이 떠안는 부실 규모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자료 :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돈 잃는다는 불안보다 금융사 무신경이 더 화나"
금융당국은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사실상 뒷짐

지난달 15일 파산한 미국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자산을 편입한 펀드에 돈을 넣어둔 투자자들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12일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를 보면, 애초 리먼브러더스에 투자했다가 환매가 중단됐던 펀드는 모두 13개로, 총 설정액은 4137억원이다. 이 중 아이부산운용의 '아이절세미인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 등 8개 채권형 펀드는 지난달 말 환매 중단 조처가 풀[illegible]사가 펀드 자산 중 리먼브러더[illegible]분을 별도로 떼어내는 방식으[illegible]드를 부실펀드와 정상펀드로 쪼갰기[illegible]이다.

그러나 하나유비에스(UBS)운용과 삼성운용, 우리시에스(CS)운용, 마이애셋운용 등 4개 자산운용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펀드의 운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펀드들은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을 직접 사와서 만든 주가연계펀드(ELF)여서 펀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나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해당 운용사는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리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조처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시에스운용의 한 펀드에 2천만원을 투자했던 이숙자(48·주부)씨는 "환매가 안된다는 통기우편을 받은 이후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보다 금융회사의 무신경과 무대책에 더 화가 난다"고 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환매 중단 통보조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들끼리 서로 떠넘기기 하는 추태도 보인다. 한 운용사의 상품 마케팅팀장은 "환매 중단 통보는 판매사별로 알아서 하고 있다"며 "판매사들이 고객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 펀드에 얼마나 많은 고객이 투자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이애셋운용 펀드를 판매한 ㄱ 은행 직원은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환매 중단된 펀드들이 파생상품 펀드인 만큼 투자자들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펀드운용전략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상 초유의 환매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금감원은 검사권 발동을 주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먼 쇼크 이후 펀드 부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정감사 이후에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사후 처리가 쉽지 않다면, 공모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엔 최소한 동일 종목 편입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규제 완화보다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불완전 판매

펀드를 비롯한 금융 상품의 기본 구조,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근 대부분 펀드에서 손실을 내면서 금융회사와 고객들 사이에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린 통화옵션상품 '키코'를 둘러싸고도 불완전 판매가 논란이 불거져 있다.

경향신문

2008년 10월 15일 019면

새내기 직장인 CMA부터 가입하라

월급 50~60%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기초보험·장기 주택마련 저축도 필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가 한창이다. 인터넷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샐러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체 상장기업의 대졸자 초임 연봉은 2854만원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하면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가량 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새내기 직장인들은 쓰고 남은 돈으로 재테크를 하기보다 저축이나 투자를 먼저한 뒤 남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투자는 적립식 펀드, 급여통장은 CMA로=새내기 직장인들은 월급의 50~60%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한 상황에서는 다소 적극적인 자산운용도 필요하다. 월급을 받는 것은 적립식펀드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해도 새내기 직장인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식시장이 급변동하고 있지만 적립식 펀드는 리스크(위험)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시도해 볼 만하다.

급여통장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하는 것이 좋다. CMA는 은행 보통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연 최고 5%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환매조건부채권(RP)형, 종금형, 머니마켓펀드(MMF)형, 예금형 등 4종류가 있다. 하지만 종금형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CMA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펀드리서치파트 조완제 연구위원은 "CMA에 돈을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며 "이자가 적다고 무시할 수 있지만 적은 돈부터 모을 줄 알아야 큰 돈을 모으게 된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 소득공제 금융상품도 챙겨야=보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기초적인 보험은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이 필수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 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다만, 가입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재무컨설팅팀 조환조 연구위원은 "장기투자상품으로 적립식 펀드를 전체 투자액의 30~40%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다"면서 "개인연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도 연간 공제한도액까지 넣으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기자

새내기 직장인에게 적합한 재테크 상품 자료:각 증권사, 은행

구분	상품명	특징
증권사	굿모닝신한증권 ▶SH해피라이프 연금펀드	노후설계, 소득공제
	대신증권 ▶부자만들기 주식형펀드	거치·적립식 가능
	동양종금 ▶동양모아드림주식1호ClassA	적립식펀드
	메리츠증권 ▶미래장기주택마련주식형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SK증권 ▶탬플턴 장기주택마련혼합1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SK증권 ▶신영밸류고배당주식	고배당주 투자
	한국투자증권 ▶무자아빠 배당플러스	고배당주 투자
은행	국민은행 ▶가족사랑 자유적금	금리 최고 연 5.05%
	외환은행 ▶2030 직장인 저축예금	각종 우대금리 제공
	기업은행 ▶e-골림 통장	인터넷 전용상품
	하나은행 ▶부자되는 월급통장	급여이체시 각종 수수료면제
	하나은행 ▶신 비과세 장기저축	비과세, 소득공제

朝鮮日報

2008년 10월 15일 b11면

펀드 따라잡기

건질 것 없는 '1조 클럽 펀드'… 덩치만 크더라

덩치만 컸지 실속은 없었다. 설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주식펀드들이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주식형펀드 전체 순자산이 100조원 밑으로 급감한 것도 이들 '1조 클럽 펀드'들이 부진한 탓으로 지적되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13일 현재 국내외 주식형펀드 1464개 중 설정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주식펀드는 국내 16개·해외 10개로 총 2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액 규모가 큰 만큼 운용사들이 신경 써서 굴릴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지만, 수익률은 그다지 안 좋았다.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1조 클럽 펀드의 3개월 평균 수익률(-18.65%)은 유형평균(-18.55%)보다 낮았다. 6개월·1년 평균 수익률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한국운용의 '삼성그룹적립식주식1(A)'와 KTB운용의 '마켓스타주식_A' 등이 선전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수익률 차이가 조금 더 확연했다. 1조 클럽 펀드의 3개월 평균수익률(-39.01%)이 유형평균(-36.4%)보다 3%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6개월 수익률도 1조 클럽 펀드(-42.9%)가 유형평균(-40.64%)을 앞서지 못했다. 가장 낮다는 슈로더운용의 '브릭스주식형'도 1년 수익률에서만 선전했을 뿐 3·6개월 수익률에선 오히려 유형평균보다 뒤졌다.

대형 주식펀드의 부진은 주식형펀드 전체 순자산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일 현재 26개 1조 클럽 펀드의 설정액은 59조4624억원으로 전체 설정액(133조2933억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증시침체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1조 클럽 펀드의 순자산은 38조6073억원을 기록 중이다. 설정액(투자원금)의 35.1%(20조8551억원)가 사라진 셈이다.

최형석 기자

설정액 1조원 이상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 (%, 1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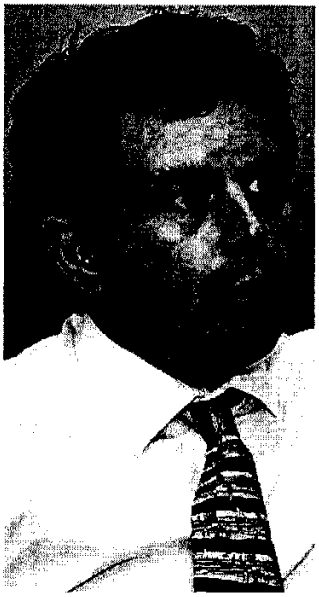
펀드명	운용사	3개월	6개월	1년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 1(A)	한국운용	-13.80	-26.14	-33.94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 1	한국밸류자산	-24.54	-29.16	-36.67
KTB마켓스타주식_A	KTB운용	-16.57	-28.62	-36.72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미래에셋자산	-18.33	-30.46	-36.94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주식K- 1	미래에셋자산	-18.68	-30.83	-37.28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4 C-A	미래에셋자산	-18.45	-30.45	-37.49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 2	미래에셋자산	-18.54	-30.53	-38.16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 1	미래에셋자산	-18.88	-30.97	-38.52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주식 1ClassK	칸서스운용	-18.99	-30.34	-38.61
미래에셋솔로몬주식 1	미래에셋자산	-18.19	-30.21	-38.64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3CLASS-A	미래에셋자산	-18.02	-30.32	-38.91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 2(CLASS-A)	미래에셋자산	-19.48	-30.75	-38.95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K- 2Class A	미래에셋자산	-19.31	-31.24	-39.50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주식 1(C-A)	미래에셋자산	-18.48	-31.20	-39.70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 3(CLASS-A)	미래에셋자산	-18.67	-31.67	-39.97
미래에셋3억만들기롱은기업주식K- 1	미래에셋자산	-19.45	-31.12	-40.61
국내주식형 평균		-18.55	-29.69	-38.03

제로인, 1년 수익률 순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25면

"美 위기, 한국 금융에 황금기회 온 셈"



돕스 매킨지 금융디렉터, 외국銀과 대등합병 조언

"앞으로 50년 동안은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매킨지앤드컴퍼니의 리처드 돕스 금융총괄 디렉터(사진)는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가 한국 금융산업에 도약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 모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돕스 디렉터는 최근 파산을 신청한 미국 4위 투자은행(IB)이었던 리먼브러더스가 영국의 바클레이즈와 일본 노무라에 각각 분리 매각된 것을 예로 들며 "한국이 일본과 중국,인도,싱가포르에 기회를 뺏기고 있다"며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영원히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인수전략으로 "미국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아시아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실패를 예로 들면서 "리먼 전체를 인수하는 딜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무라가 리먼의 아시아 사업부문만 인수한 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과 유럽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도시화는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너무 세분화돼 있고 자본시장도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규모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내부 통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일본과 캐나다 금융산업을 예로 들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현상 유지는 하겠지만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인도와 중국,싱가포르 은행들이 합종연횡을 한다면 한국의 은행들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금융서비스 산업의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오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센터가 될 경우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할 토대가 생기지 않겠느냐"며 "최소 50만개의 고소득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심기 기자/사진=임대웅 인턴

sglee@hankyung.com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27면

유가증권 시총700兆 회복 '눈앞'

삼성전자는 82조원대로

코스피지수가 6% 이상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다시 700조원 회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반등한 덕분이다.

1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시총은 694조47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16일 958조원대에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던 유가증권시장의 시총은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이달 6일에는 7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으로 630조원대까지 밀렸던 시총은 최근 이를 연속 코스피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700조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시총 회복의 일등 공신은 역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였다. 이달 초 51만원대까지 하락하며 부진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3만6000원(6.87%) 뛰어 오르며 단숨에 56만원 선을 회복했다. 삼성전자 시총도 2주일여 만에 82조원대로 올라섰다.

특히 최근 독일 D램업체 키몬다가 대만 이노테라 지분을 미국의 마이크론에 넘기기로 계약을 맺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D램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는 점은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이란 평가다.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에 맞서 신속하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점도 국내 증시의 단기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류용석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난 주말 이후 속속 발표되고 있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이 이전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증시는 상승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파이낸셜뉴스 10월 15일 031면

3분기 해외 주식거래 작년보다 42% 줄어

글로벌 증시 침체로 3·4분기 해외 주식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4분기 중 내국인의 외화증권직접투자 결제금액은 10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2% 감소했으며 외화증권 결제건수도 1만8359건에 그쳐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중국 및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투자와 결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증시 침체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 미국시장 결제건수는 3900건, 결제금액은 3억73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 및 37.1% 증가했다. 특히 낙폭이 컸던 중국시장 결제건수는 1686건, 결제금액은 2000만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각 60% 및 8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slee@fnnews.com | 이세경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27면

기업,증시자금 조달 올들어 급감

IPO·유상증자 부진 영향

주식시장 침체로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조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5570억원(35건)으로 전년 동기의 1조6878억원(38건)보다 66.9% 감소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도 9월까지 3조3706억원으로 지난해 8조7038억원에서 61.2% 급감했다.

특히 9월 한달 기업공개 규모는 114억원(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중 유상증자 발행액도 1567억원(12건)으로 8월보다 69.9% 줄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증시 자금조달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식 발행을 통한 조달실적 부진과는 반대로 회사채 발행은 증가세다. 올 들어 9월까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39조145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32조9003억원에 비해 18.6% 늘었다. 금감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점이 회사채 발행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파이낸셜뉴스 2008년 10월 15일 032면

코스닥사 3분의 2, 주가 청산가치 밑돌아

647개사 PBR 1배 미만

코스닥 상장사 3개사 중 2개사꼴로 주가가 청산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2월 결산법인 중 지난 10일 주가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647개사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 12월 결산법인(986개)의 65.6%에 달하는 것이다.

PBR가 1 미만이면 기업이 가진 자산보다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해당 기업이 청산한다 해도 시가총액을 훨씬 웃돈다는 의미다.

특히 큐리어스의 경우 6월 말 현재 자본총계 기준으로 시가총액(10월 10일 주가 기준)을 나눈 결과 PBR가 0.14에 불과했다. 또 엑스씨이, 삼협글로벌, 네오위즈, 디아이세미콘, 리노셀, 희훈디앤지, 코맥스 등은 PBR가 0.20 이하였다.

PBR가 1 이상인 코스닥 상장사는 333개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신지소프트가 PBR 456.20에 달했다. 에이엠에스, 셀트리온, 게임하이, 모코코, 코미팜, NHN, KNS홀딩스 등은 PBR가 10 이상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청산가치를 크게 밑도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PBR가 1 미만이라는 것은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PBR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의 성장성이나 수급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만호기자

겁없는 국내 개미들 헐값된 월가株 '기웃'

美 주식투자 37% 증가… AIG 집중 매입

"위기진행형" 신중 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월가 금융업체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글로벌 국제 공조에 힘입어 유동성 위기가 진정되고 있어 현재 헐값 수준인 주요 금융업체들의 주가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아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중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미 금융주 매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회사의 전체 미국 주식 매수 주문에서 금융주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98%,이달에는 99%로 늘어났다.

개인들은 특히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가까스로 구제된 AIG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 기존에는 VISA와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의 매수 주문이 많았지만 9월 이후에는 90% 이상이 AIG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엔 리먼브러더스가 순매수 2위에 올랐고 이달 들어서는 채권보증업체인 암박과 와코비아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대한 주문량도 전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권사 김우석 해외주식팀장은 "금에너지 태양열 등 자원 관련주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이 금융주로 옮겨 가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해외주식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리딩투자증권 관계자도 "상반기에는 중국과 홍콩 주식에 쏠렸던 개인들의 관심이 지난달을 기점으로 미 금융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이용한 매매 외에도 야간에 전화로 투자 문의를 하거나 주문을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규모는 1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2% 감소했지만 미국 주식의 투자 금액은 3억7300만달러로 37.1%나 증가했다.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금액이 80% 넘게 줄어든 것과는 극히 대조된다.

개인들이 미 금융주 투자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헐값'이 된 상황이어서 단기에 급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서용원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 위기로 대부분의 금융업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미 정부의 잇단 구제책으로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에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모건스탠리의 주가는 90% 폭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 센터장은 "금융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잠복해 있고 금융업체들이 부실에서 완전히 벗어날지도 불투명한 만큼 '묻지마식 투자'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한국경제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10면

국고채 금리는 내리는데 CD는 계속 올라

주택대출자 이자부담 갈수록 커져

채권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채권시장에서 실세금리인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내린 5.28%, 지표금리인 5년물 국고채 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한 5.31%를 기록했다. 그동안 급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전날 상승했던 것을 제외하면 3년물 금리의 경우 지난달 26일 6.01% 이후 0.73%포인트나 하락한 것.

하지만 가계 부담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이 되는 CD 금리의 고공 행진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CD 금리는 지난달 24일 5.79% 이후 20일 만에 무려 0.24%포인트 급등하며 이날 6.03%를 기록했다. 2001년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CD 금리 더 오를 수도

김동완 CJ증권 차장은 "오름세를 보이던 3·5년물 국고채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다른 장단기물 금리까지 끌어내리는 양상"이라며 "연말까지는 불안 요소가 있겠지만 내년 초 4%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은행채, CD, 회사채 등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돈이 돌지 않는 '동맥경화' 현상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면서 신용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단위=연%)

은 행	3개월 변동형	3년 고정형
국 민	6.72~8.22	8.24~9.74
우 리	6.88~8.18	8.64~9.74
신 한	6.78~8.08	8.52~9.52
하 나	7.10~8.40	8.85~10.05
기 업	7.00~8.50	7.97~9.43
외 환	7.11~8.39	7.96~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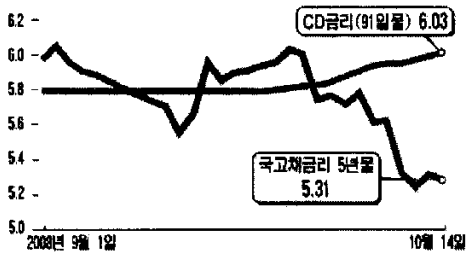
※14일 기준. 자료=각 은행

은행채를 많이 보유했던 증권사들의 유동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지난달 중순처럼 극단적인 투매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처럼 신용물에 대한 염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13일 현재 3년물 국고채와 은행채 3년물 스프레드는 2.5%를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CD의 최대 수요처인 머니마켓펀드(MMF)에 최근 들어 자금이 유입되는 데다 시장 거래가 뚝 끊겼던 은행채도 원화 유동성에 대한 염려로 은행들이 발행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보통 CD 금리가 은행채 금리보다 0.05~0.1%포인트 높기 때문에 금리가 역전된 현 상황에서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CD·국고채금리 추이 (단위=연%)



양진모 SK증권 과장은 "연말까지는 전반적인 안정 분위기 속에 채권 수요가 차별화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업금융채권이나 중소기업금융채권과 달리 은행채나 CD 금리 상승이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변동형 담보대출 금리 오름세

CD 금리 상승에 따라 시중은행의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직전 영업일 CD 금리를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시키는 하나은행은 14일자 금리를 13일보다 0.02%포인트 올렸다.

14일 기준 하나은행의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10~8.40%로 지난주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직전 3영업일 평균 CD 금리를 반영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14일자 금리를 13일보다 0.01%포인트 오른 연 6.88~8.18%, 6.78~8.08%로 결정했다. 지난주 초에 비해 각각 0.13%포인트 올린 것이다.

국민은행도 이번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6.72~8.22%로 지난주에 비해 0.11%포인트 올렸다. 외환은행은 연 7.11~8.39%로 지난주에 비해 0.12%포인트 올렸고, 기업은행은 7.00~8.50%로 0.10%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CD 금리가 연 4.5%대였던 2년 전 2억원을 연 6.5% 금리로 대출한 경우 금리가 1.5%포인트 오른 지금은 연간 이자가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나게 된다. 8월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7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 이상이 변동금리형 대출이다.

3년물 은행채 금리도 13일 현재 7.82%(민간 평가사 평균)로 8%대를 향하면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상승 압력이 강한 상황이다. 노현·임성현 기자

머니투데이 2008년 10월 15일 008면

금융권 IB업무 사실상 마비

신사업 중단에 금융자문·IPO 문의조차 없어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권의 투자은행(IB)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은행 증권사 등 IB부서의 경우 새 사업이 전면 중단된데 이어 금융자문 문의도 최근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던 금융기관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회사 IB부서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우리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등 기존에 진행하던 것을 제외하곤 IB사업부에서 준비하는 신규 업무가 없다는 전언이다. 다른 은행들도 "리스크관리 부서 외에는 모두 손을 놓은 상태나 다름없다"는 분위기다.

증권업계는 "가뜩이나 증시 침체로 투자사업이 축소됐는데, 최근에는 금융자문시장까지 얼어붙었다"며 울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IB팀이나 M&A팀이 진행한 딜이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가 성사된 것도 계약 2-3일 전에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경기가 어려워도 기업공개(IPO)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으나 요즘에는 이마저 끊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당혹스런 표정이다. 이들은 IPO로 재무건전성을 높일 계획이었으나 증시폭락으로 상장계획이 보류된 탓에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기관들은 바젤2 도입 등으로 자기자본 확충에 주력할 상황이라 답답해 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장시 공모자금 유입으로 재무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봤는데, IPO 일정을 미루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최근 경영여건도 좋지 못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우캐피탈, 기은캐피탈,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등은 올 연말 상장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고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저축은행은 예금을 통해 영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캐피탈사들은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울상이다.

캐피탈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론 적자전환을 걱정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할부나 대출 등 상품가격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량고객이 빠져나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신규고객 확보보다 기존고객 유지 및 리스크관리 업무만 하고 있다"며 "상장시기를 좀 더 앞당겼으면 하는 아쉬움만 남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상장을 추진하던 생보사들도 안타까움이 많다. '생보사 상장1호'로 기대를 모으던 동양생명은 지난주 상장계획 보류를 공식 발표했으며 다른 업체들도 증시가 회복되고 환율 상승세가 진정될 때까지 일정을 미룬다는 방침이다.

반준현 기자 abcd@

매일경제 10월 15일 a02면

환변동보험 일시 판매중지

수출보험공사는 14일 외환자금시장 상황 악화 등에 따라 환변동보험의 인수를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수보는 "기업이 환변동보험을 청약하면 당일에 같은 금액을 은행에 반대거래해 헤지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외화자금시장 상황 악화 등에 따라 공사의 헤지 거래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부득이 중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중에 '달러 가뭄' 현상이 벌어지며 은행들이 헤지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 수보의 설명이다.

수보는 지난 13일 오전부터 달러 대비 원화값이 급격히 오르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수보는 일시적인 환변동보험 인수 중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환율 급변동이 계속될 경우 중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달러 대비 원화값이 강세로 가며 혜택을 봤으나 최근 원화값 급락으로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6449억원의 환수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박동범 기자

인쇄하기 창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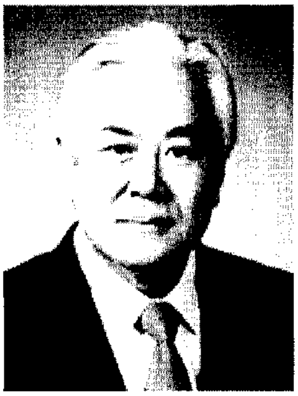
이데일리
edaily.co.kr

(대혼란기 펀드전략)⑩인내로 탐욕·공포 극복하라

(기고)최봉환 자산운용협회 부회장

[이데일리 증권부] `대혼란기의 펀드투자 전략` 시리즈가 10회째로 마무리됩니다. 요즘과 같은 대혼란기가 장기적 관점에서 펀드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발상 시각에서 시작한 시리즈가 투자자들의 바람직한 펀드투자 및 자산배분 방향에 도움이 되길 빌며 마지막으로 최봉환 자산운용협회 부회장의 기고를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자본시장에 몸을 담은지 20여년을 넘으면서 시장이 공포에 질려있는 상황을 여러차례 목격했다. 지금의 시장상황은 1997년 환란이 발생했던 시기를 연상시키지만 국내상황만 놓고 보면 보유외환이나 기업건전성 등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체질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 최봉환 자산운용협회 부회장

다만 당시 위기는 한국을 비롯, 동남아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고 미국 등 선진국은 경제상황이 좋았던 반면 지금은 우리 경제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대외경제상황이 더욱 불안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관계없이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난 몇 년간 간접투자시장을 선택한 투자자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서는 업계관계자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금융시장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시장의 위기는 대부분 탐욕이 과해지면서 위기가 나타나고 그 상황에 대한 공포가 일정시간 지속되면 위기에서 벗어나 시장이 살아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에서의 공포반응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1987년 미국의 블랙먼데이를 돌이켜보자. 미국 주식시장은 대공황의 재연에 대한 공포로 하루만에 무려 22%나 폭락했다.

1990년대후반 IT버블때는 너도 나도 `닷컴`이나 `테크`란 이름이 들어간 회사의 주식을 사려는 탐욕이 시장을 지배했고 기술을 이해하기도 힘든 벤처기업의 주가가 치솟듯이 올라갔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주식이 다시 휴지조각처럼 헐값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탐욕은 이내 슬픔과 공포로 바뀌었다.

지난해 미국에서 불거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도 지나친 과욕에서 시작된 일이다. 자산이라고 이름붙은 것을 모조리 증권화해서 돈을 벌려는 움직임은 결국 빚을 거래하는 파생상품까지 만들어냈고 여기에 2차, 3차 파생상품까지 유통되면서 증권화된 상품이 돌

고 도는 과정에서 커다란 재앙이 잉태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분위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후행투자가 되고 실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 모두가 즐거워할 때 투자를 시작하고 주가가 떨어져 바닥이 안보인다 싶을 때 팔아 손해를 보는 후행적 투자를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가가 바닥일 때 투자를 시작하고 꼭지일 때 팔고 나온다는 것은 개인투자가 아니라 그 어떤 투자주체에게도 쉽지 않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탐욕과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투자자가 자신의 의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투자를 결정할 때 탐욕과 공포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성공하는 사례를 보기는 힘들다.

결국 방법은 인내심이다. 투자시점이라는 것은 항상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게 마련이라 주관적일 수 밖에 없고 후행적일 수 밖에 없다. 항상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교차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시점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면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장기투자를 함으로써 그 과실을 자연스럽게 누리라는 이야기다.

또 자신의 형편에 비해 큰 돈을 투자할 경우에도 주가의 등락에 따라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 적립식으로 매월 꾸준히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공포의 대표적 순간이었던 1987년 미국의 블랙먼데이 때를 보자. 모두들 팔지 못해서 아우성이었던 그 시기에 만약 주식인덱스상품에 투자해서 인내하면서 10년을 유지했다면 투자수익률은 무려 305%에 달하게 된다. 또 2001년 9.11테러 직후에 투자했다면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16%이지만 6년을 기다린 후에는 53%의 수익을 쥘 수 있었다.

최근에 수익률이 악화됐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펀드인 마젤란펀드는 1977년부터 13년간 2700%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마젤란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운데 실제로 이 같은 수익률을 누린 투자자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유는 13년간 투자한 투자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시장의 정서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례들은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를 이자로 생활하는 시대가 지났을 때 대안은 결국 간접투자가 될 것이다. 20년후, 30년후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층이 크게 늘어나서 우리나라 펀드투자 문화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견인할 정도로 성숙해지기를 기대해본다.(끝)

< 협찬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SAMSUNG 삼성투신운용 자산운용협회 하나UBS자산운용 true friend 한국투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39면

세계증시 급반등 어떻게 봐야하나

글로벌 증시가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13일 뉴욕증시 다우지수가 사상최대폭으로 오르고 유럽 증시도 10% 안팎씩 상승한 데 이어 어제 아시아증시 역시 큰 폭으로 솟구쳤다. 우리 증시 또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6.14% 및 7.65% 뛰어올랐다.

세계 증시가 급등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에 나선 데 힘입은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 중앙은행들은 달러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키로 했고, 유럽 각국들이 발표한 구제금융 규모 또한 2조 달러선에 이른다. 이에따라 세계금융시장을 짓눌렀던 신용경색이 풀리고 대형 금융회사의 부도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크게 완화(緩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가 이것으로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미국과 유럽국들이 금융회사들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잠재부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구조조정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막대한 구제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가 단시일내에 완전히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특히 이번 구제책은 미국과 유럽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신흥시장 국가들은 아직 뚜렷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점도 걸림돌이다.

우리의 경우는 결코 경계감을 늦춰선 안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종전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이번의 국제공조가 국내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외국 금융회사들이 스스로의 체력을 회복해야 한국 주식 매도세가 감소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 차입(借入)이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달러 차입 길이 다시 열리면서 달러 공급 루트도 살아날 수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정부는 달러화는 물론 원화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 자금난 때문에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39면

달러 무제한 공급 안도할 때 아니다

미국과 유럽 및 일본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이 주요국 주가를 사상 최대로 폭등시키는 등 대형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금융안정화법에 근거한 7000억달러 공적자금 중 2500억 달러를 금융회사에 본격 투입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시장 분위기는 급속히 호전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백약이 무효'라는 표현처럼 미국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G7 및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정책공조라는 원칙론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자 시장은 또 실망했다. 그러다 사상 유례없는 달러 무제한 공급이라는 극약처방이 나오자 시장이 겨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금융위기의 악몽이 일단 끝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관단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성급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달러를 무제한 풀겠다는 극히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해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안정시킨다고 해서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글로벌 거품 형성기에 급등한 주요국 주택 가격은 정점에 비해 이제 겨우 절반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만 해도 집값이 바닥을 치는 데는 앞으로 1~2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한다. 그 사이 금융사 부실은 더욱 커지고, 공적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은 파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실물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 소비·투자 위축으로 금융부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국가 간 정책공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주요국들이 취하는 정책에 일희일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고통의 터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증시 투자자는 물론 기업이나 가계도 무모한 낙관론에 근거해 경솔한 의사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05면

한은 금리 더 내리나

이성태 총재 등 잇따라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까.

이성태 한은 총재가 "내년 상반기까지 4% 성장이 쉽지 않다"는 등 최근 잇달아 경기 하강을 우려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다 향후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불안의 진원지 중 하나였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미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지난 7월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70달러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를 올린 지 두 달 만에 전격 인하했다.

이 총재도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한은 입장에서 첫 신호는 물가이지만 경기와 경상수지 등도 염두에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직후 "금리 변동은 한번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은행채 등 크레디트물(비정부채) 금리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가 연 6%대를 돌파한 점도 기준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심각한 국내 경기 둔화를 감안해 한은이 내년 말까지 총 1.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국내외 투자기관들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경기 둔화를 감안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연 5.00%)도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동준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은 "일단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이왕이면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경기 둔화를 막는 데 유리하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전에 최대 1%포인트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05면

국내경제 내년 성장률 3%대 '먹구름'

정부만 낙관론·민간硏 잇단 '경고 사인'

실물부문 자산가격 하락땐 금융권 충격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이 3%내에 그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의 충격파가 전 세계 실물경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부분 둔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물가보다 경기'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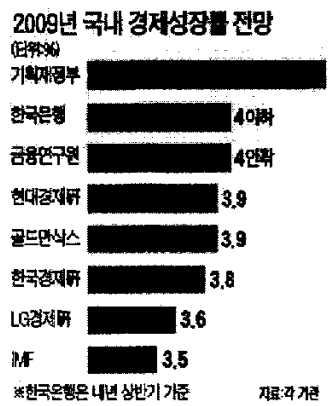
◆내년 3%대 성장 그칠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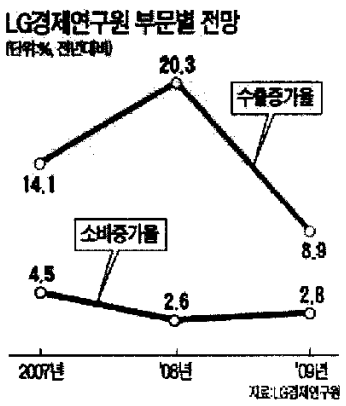
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4.8~5.2%로 전망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국내 경제도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이란 근거에서다.

하지만 민간 예측기관들의 전망은 완전 딴판이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내놓은 '200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조만간 내놓을 보고서에서 3.9%를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경제연구원(3.8%) 금융연구원(4% 안팎) 등 다른 경제연구소와 국제통화기금(3.5%) 골드만삭스(3.9%) 등 해외 기관들도 '3%대 중후반 또는 잘 해야 4%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4% 성장이 힘들고 하반기에도 자신 있게 좋아진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친다면 '신용카드 사태' 당시인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민간 연구소 등이 내년 경제에 대해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은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9%에서 내년 3.1%로 둔화되고 미국 등 선진국 경기도 당분간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는 수출이 잘 버텨주면서 국내 경기의 하강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계 경기 하강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수출 증가율이 올해 20.3%에서 내년에는 8.9%로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9%에서 내년 3.7%로 둔화될 것으로 이 연구소는 전망했다.

◆최대 과제는 내수 부양

내년 국내 경제에는 변수가 많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풀릴지, 신용경색이 실물경제에 얼마나 파급될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이 같은 외풍을 얼마나 잘 견딜지 등에 따라 한국 경제의 내년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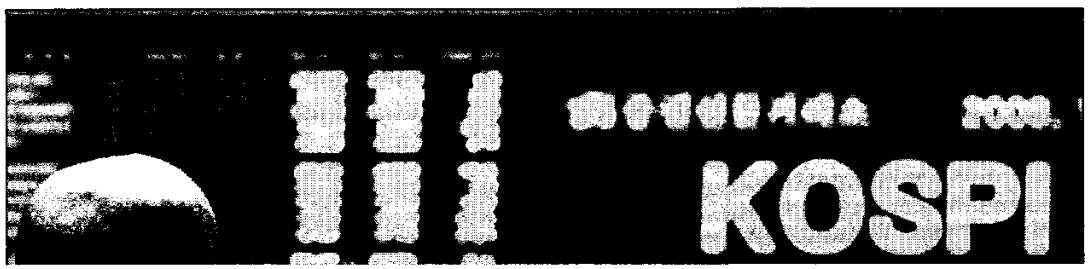
특히 실물경기 침체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금융권 전반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중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8월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자칫 여기서 부실이 발생하면 가뜩이나 부진한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 국내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는 뭘까. 전문가들은 내수경기 부양을 꼽는다. 수출의 경우 세계 경기에 직접 좌우되는 만큼 우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가계부채와 고용 불안 등으로 내년에도 민간소비가 별로 안 좋을 것"이라며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은행 달러가뭄 숨통 트이나

오버나이트 금리·CDS 프리미엄 일제히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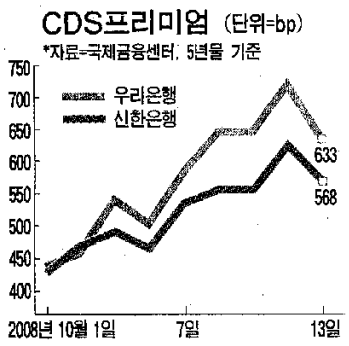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달러 무제한 공급 약속을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은행들의 달러 가뭄이 서서히 해갈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루짜리 차입용 오버나이트 금리와 함께 채권발행 지표가 되는 크레딧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14일 국내 은행 자금담당자들은 대부분 심각한 달러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달러가 원활하게 공급되기까지 시차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영 우리은행 자금부장은 "주요국 주식시장이 폭등한 데다 국내 환율도 떨어지는 등 환경이 개선돼 달러 자금 시장도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가 살짝 해가 비치는 수준"이라며 "글로벌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한 이후인 연말께나 돼야 실제 달러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한 국민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은 "앞으로 조금씩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서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 단기차입 차환율도 좋아질 것이지만 각국 조치가 국내 은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만기 도래 단기 차입에 대한 차환이 어려워져 예전에 100%를 웃돌던 1년 미만 단기자금 차환율이 9월에 70%까지 떨어진 바 있다.

14일에는 외화차입이 쉽고 어려운지 여부를 알려주는 주요 수치들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서 그만큼 차입 여건이 좋아졌음을 나타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오버나이트 금리도 지난주 4%대까지 다시 올랐다가 오늘 다시 3% 안팎으로 떨어졌다"며 "다음주 정도면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1개월 이상 기간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3일자 우리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10일에 비해 85bp 떨어진 633bp를, 신한은행은 56bp 하락한 568b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부도 위험도 낮아지고 따라서 외화 차입 사정도 좋아졌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달 내에 1~3개월 단기 기간물 시장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공모채 발행 등 1년 이상 장기 자금 시장까지 완전히 살아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공모채 발행 시장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다.

정경채 산업은행 국제금융실장은 "시장에 미국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 시장은 좀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분간 은행들은 비교적 큰 달러 자금은 지금까지 방식대로 은행 간 거래를 통해 구해와야 한다.

조만간 기업은행이 유럽계 은행에서 1억달러를 우리나라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1년간 빌려올 계획이며, 우리은행도 이달 말 유럽계 은행에서 신용 차입으로 7000만달러를 1년 만기로 가져올 예정이다. 조시영 기자

매일경제

'김 달러 여사'를 아시나요

선물시장 환차익 겨냥 대거 참여
이달 들어 개인비중 최대 16%나

〈환테크 나서는 주부들〉

투기적 성격 강한 FX마진거래도 '큰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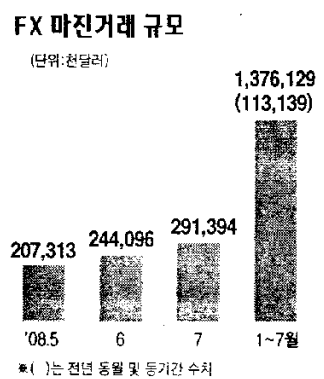
'김 달러 여사를 아십니까.'

고공행진을 하던 환율이 조금은 내려섰지만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달러 선물시장에 환차익을 노린 개인들의 참여가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면서 속칭 '김 달러 여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환테크에 나서는 일본 주부를 지칭하며 고유명사처럼 굳혀진 '와타나베 부인'의 한국형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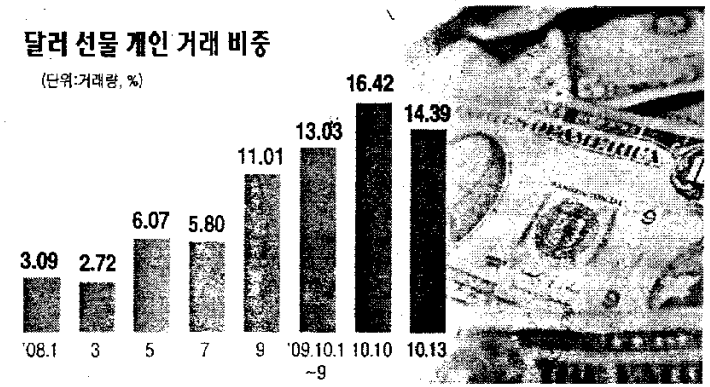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을 돌파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후 달러 선물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 환율이 하락한 최근 이틀 동안에도 전체 선물거래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달러 선물거래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전체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1월 3.09%에 불과했고 지난 6월까지도 4%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환율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9월에는 11.0%를 기록. 사상 첫 10%대를 돌파했다.

10월 들어 선물시장에서 개인의 참여는 더욱 늘었다. 환율이 급등한 이달 1일부터 9일 사이에는 개인거래 비중이 13.03%까지 치솟기도 했다.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최근에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환율이 1,309원으로 떨어진 10일에는 개인 간 거래 비중이 16.42%를 기록했으며 1,238원으로 하락한 13일에도 조금은 낮아졌지만 14.39%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선물협회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선물시장에 개미군단이 대거 참여하면서 현재는 개인거래 비중이 외국인보다 높고 웬만한 기관투자가 못지않은 상태까지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달러 여사'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달러 선물보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에서도 '큰손'으로 등장했다. FX 마진거래는 달러·엔화 등 전세계 주요 통화를 매매해 환차익을 얻은 것으로 장외거래로 이뤄져 달러 선물보다 이익과 손실의 편차가 크다.



통상 FX 마진거래는 개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이 주도하는 FX 마진거래 규모가 올 2월 1억1,500만달러에서 매달 급증해 7월에는 2억9,100만달러로 163%나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월 1억1,300만달러에 머물렀던 FX 마진거래 규모는 올 1~7월 13억7,000만달러로 가히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8월 통계는 현재 집계 중인데 거래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9월과 10월에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을 것으로 선물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미군단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달러 선물이나 FX 마진의 경우 거래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전문지식만 있으면 증권 데이트레이딩처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증배기자 ljb@sed.co.kr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2008년 10월 15일 001면

'족집게' 삼성경제硏조차…
"경제전망치 발표 미룰래요"

"족집게라고요? 부담스러워요."

최근 유가와 환율전망이 적중해 관심을 끌었던 삼성경제연구소(이하 삼성연)가 내년 경제전망을 쉽사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연은 14일 오전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 연구소 측은 내부 연구원들 사이에 경제전망과 관련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어 이날 발표는 어려울 것같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민간연구소인 삼성연은 통상 다른 경제연구소보다 빨리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지난해에는 9월 중순에 2008년 경제전망을 내놨다. 삼성연의 경제전망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최근 유가와 환율전망이 적중한 데 따른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연은 지난 4월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벌이던 당시 내년 유가전망을 '60~70달러'로 예측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에는 무리한 예측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최근 유가는 삼성연의 예측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 "적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연은 또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던 지난 9일 '최근 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주요 7개국의 교역가중치와 물가 등을 고려한 적정 원/달러 환율은 1002원 내외"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공교롭게도 환율은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11일 미국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적정 환율은 그 정도 수준(삼성연이 지적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환율전망이 적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구원들이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같다"고 설명했다.

김진형 기자 jhkim@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05면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FT 보도와 정부 해명

구 분	FT 보도	정부 입장
강만수 장관 출장	달러를 구하기 위해 모건스탠리 면담	금융위기 일반론 논의 목적
포스코 채권 발행	외환시장 안정 위해 10억달러 채권 발행	포스코 자체 결정, 외환시장과 무관
강 장관 국회 답변	수출 이외 모든 변수가 외환위기와 유사	앞뒤 자른 일부만 인용·왜곡
대외채무	내년 6월까지 차환외채 1750억달러	선물환 관련 600억~700억달러 차환 불필요
민간부채	민간부채 GDP의 180%, 과도	가계 금융자산 증가, 기업·금융사 재무 건전
은행권 문제	자금조달 12% 해외 의존, 유동성 부족	CD 포함 예대율 103% 불과, 원화 유동성 양호
신용평가사 언급	자금 불능 발전 우려	용어 자체를 쓴 적이 없음
경상수지·수출	경상수지 적자전환, 수출 둔화 우려	경상수지 기조 변화, 수출 급감 가능성 적음
환율정책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고갈 우려	외환보유액 세계 6위로 충분, 환율 하락 안정

FT "한국경제 가라앉는 느낌" 잇단 악의적 보도

분노한 정부 조목조목 반박

"한국 경제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라니. 근거도 빈약한 보도를 반복해 한국 경제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파이낸셜타임스(FT) 기준이라면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나. 한국만 따로 조명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정책 당국이 FT의 한국 경제에 대한 연이은 관측성 보도에 발끈한 수준을 넘어 '분노'를 표시했다. 이미 환율이 안정되고 주식시장까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FT의 악의적인 보도가 선을 넘었다는 게 재정부 등 정책 당국자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FT는 이날 '가라앉는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외화유동성이 심각하고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기사를 1개면 전체를 할애해 보도했다.

14일 아침 보도를 접한 재정부는 즉각 국제금융국과 경제정책국이 나서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한 해명자료를 준비했고 오후 4시 주요 간부진이 기자브리핑에 나섰다.

재정부는 우선 강만수 장관이 모건스탠리 CEO를 만나는 것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FT 보도에 대해 "국제금융 전문가를 만나 현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장관이 달러 편딩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며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자리를 이렇게 쓸 수 있나"라고 탈했다.

10억달러 규모 포스코 채권 발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업체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FT가 강만수 장관이 국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것이 외환위기와 비슷하다"고 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재정부는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해 진의를 왜곡한 문제가 있다"고 각을 세웠다.

재정부는 대외채무 규모와 차환 문제, 민간 부채, 은행권 유동성, 피치 등 신용평가사 문제에 대해서도 FT가 이미 해명한 내용은 무시한 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FT의 이 같은 보도 행태가 최근 우리 정부가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 등 아시아권 통화공동체 구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것에 대한 서구 경제권 시각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최종구 국장은 "현재로서 FT 의도를 알 길이 없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을 신청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탈했다. 김태근 기자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05면

"실물위축 막아라"..정부 대책마련 바빠졌다

키코피해·건설사 지원 등 긴급 처방 전문가들 "경기부양 적극 검토할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각국이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실물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건설사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보고 있는 국내 실물경제의 위기 신호는 크게 세 가지다.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와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와 이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 우려 △500조원이 넘는 가계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최근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안을 내놨다. 중소기업을 네 등급으로 분류해 키코 손실 기업(A등급)에는 최대 20억원,키코 손실이 없는 기업(B등급)에는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C등급)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며 회생 불가능한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설사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곧 발표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639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상환을 연장해주고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공택지 계약 포기 시 되사주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을 투입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안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연체율이 높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이로 인해 연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소득 하위 20% 계층 등 저소득층이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 기간을 늘려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과는 별개로 내년 이후 근본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고용 불안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기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결국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각국이 금융시장 불안 대책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받을 충격은 덜 하겠지만,우리 경제는 수년간 구조적으로 내수가 위축돼 왔다"며 "정부가 이미 내놓은 감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위기가 글로벌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은 더 클 것"이라며 "금리 인하는 환율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재정 지출을 늘려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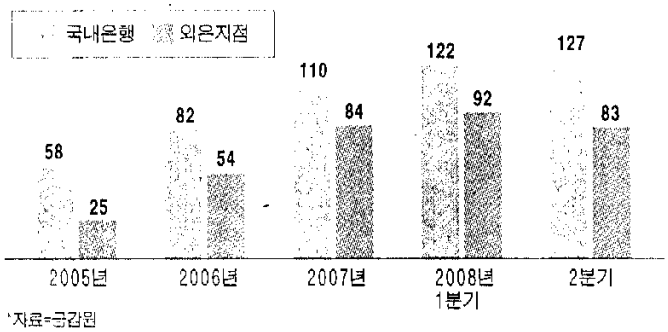
실물경제 위축에 대한 정부 대책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확정)	·키코(KIKO) 손실 기업 등 중소기업을 4등급으로 분류해 최대 20억원 지원 ·수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유동성 및 보증지원 한도 4조3000억원으로 증액
건설사 자금 악화(발표 예정)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상환 연장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공택지 계약 포기시 중도금 환불 ·2조원가량 투입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로 매입
가계 대출(검토 중)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에 대한 대규모 해외설명회(IR)에 나섰다.

일부 외신에서 국내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위기, 건전성 문제 등을 왜곡 보도하면서 외국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심리가 가중되자 금감원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 금감원이 국내 피감기관에 대해 직접 IR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은행권 외화부채 규모(단위=십억달러)



*자료=금감원

김종창 금감원장의 콘퍼런스콜

골드만삭스 통해 금융시장 설명
해외투자자 "도움됐다" 긍정 평가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오후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1시간짜리 콘퍼런스콜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창 금감원장이 20분간 모두 발언을 한 후에 투자자들로부터 일일이 질문을 받아 응답에 나선 것. 콘퍼런스콜에 참석한 한 외국계 애널리스트는 "최근 한국 금융주가 유독 과도한 하락세를 보인 데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설명회를 갖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런던 도쿄 홍콩을 비롯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이 대거 참석했다"며 "시간제약 때문에 질문이 제한됐을 정도로 성황이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콜에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은 역시 국내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위기 가능성과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었다.

최근 외신을 통해 국내 은행이 달러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해주고 있다는 보도가 세나왔기 때문.

김 원장은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예금·대출비율은 103.2%(예수금에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했을 때)로 대부분을 원화로 조달해 원화로 대출함을 알 수 있다. 은행채를 포함할 경우 예금·대출비율은 오히려 85%까지 낮아진다.

또 4분기 중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금은 327억달러로 현재도 롤오버가 꾸준히 진행중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홍콩 주재 펀드매니저는 "기존에 알고 있던 숫자를 알려주는 것보다 정부의 감독 방향이나 향후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해준 것이 크게 도움이 됐다"며 "특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감작스럽게 감독을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백업된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콜 때문에 즉각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14일 은행주들을 둘러싼 투자환경은 크게 완화됐다. 이날 아시아시장에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부도스왑(CDS)이 40bp 이상 급락세를 보였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2008년 10월 15일 008면

금감원 개혁인사 움직임에 술렁

"내부혁신 도움" "형평성 어긋나" 설왕설래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위직 임직원에 대한 인사정책 변화를 시사한 금감원장의 발언 이후 술렁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종창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 등을 통해 금감원 고위직에 대해 나이나 계급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개혁적인 인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정과 소신있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관행과 상관 없이 폭넓은 기회를 주겠다는 '당근'과 '채찍'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금감원 내에는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은 아니지만 국장자리에 오른 후 5년 내 승진을 못하면 보직을 받지 못해 용퇴해야 하는 묵시적 관행이 있어 왔다. 또한 연령 상한선도 둬 해마다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1954년생이 연령 제한에 걸린다. 기준에 누락된 인사들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교수 등으로 일하며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까지 머물게 된다.

이런 가운데 김 원장의 발언을 놓고 금감원 내부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개혁 인사를 통해 능력 위주 인사정책을 펼치겠다는 김 원장의 의지가 내부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인사적체와 함께 이미 불거진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주도하는 개혁인사가 금감원 조직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dskang@fnnews.com | 강두순기자

금융회사에 자통법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중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통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모범 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부당 권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자교육재단 등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투자자 보호 관련 프로그램도 개설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06면

'건설사 묻지마 지원' 모럴해저드 우려

정책 오버슈팅 없게 부실규모등 분석
適期에 실효성있는 대책 시행해야
정부 부동산대책 이르면 주말 윤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3개월 미뤄준다는데 맞는 건가요?"(N시행사 대표)

"11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 전에 대책이 나오는 거죠?"(A건설사 임원)

정부가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사정이 급박한 건설업계에서는 요즘 지원대책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업계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적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모럴해저드의 문제없이 경쟁력 있는 업체를 구제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기를 빌미로 한 퍼주기식 지원이 나와선 곤란하다는 '정책 오버슈팅'에 대한 경계심리다.

특히 정책의 발표시기와 정도를 놓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간 불협화음도 감지된다.

건설업 지원책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서둘러 발표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 대책과 건설사 신용 보강 등을 큰 축으로 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정부부처 간 주장이 제각각이다.

먼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최대한 빨리 대책을 내놓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중견 건설사의 위기 징후가 뚜렷한 만큼 일단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부 등이 현장을 잘 모른다고 지적한다. "건설사 간 사업과 자금관계가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자칫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사태를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금융위 역시 부동산 대책은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 시장에 불필요한 기대감만 확산시킬 수 있고, 조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이런 입장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다. 실물경제에 대해 선제 대응하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정부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엔 아직 전제조건과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반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에 이상 징후가 없고, 중견 건설사의 PF대출 부실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계 건의만 반영한 대책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지원 정책 당국별 입장

청와대	• 건설업 조선업 등 실물경제 위기 선제대응 • 상징적인 차원에서 정부 대책 필요
기획재정부	• 세부 분석 없는 건설업 지원 거부감 • 부실 정도에 따른 지원 방안 사례별 조율 필요 • 건설사, 자구 노력과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국토해양부	• PF 대출 특성상 '저축은행-건설사-시행사-협력업체' 동반 타격 염려 • 건설업계 의견 수용해 9월 말부터 조기 대책 발표 주장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 종합대책 틀 안에서 추진 • 대출 만기 연장 등은 은행이 결정 주도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15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PF사업장 전수조사 결과와 국토부가 취합한 건설업계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쯤에는 윤곽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건설업계 안팎에서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PF 대출, ABCP 만기 연장 △건설사 신용 보강 △미분양 아파트 추가 매입 등이다.

이미 대한주택보증이 1조~2조원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고, 일부 ABCP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은 일반에 공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유동성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 유동성 보강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체 80조원에 육박하는 PF사업장 가운데 어느 부분, 어느 업체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할지 총규모를 정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원칙을 정하는 작업이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대책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중기 종합대책 틀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대출 만기 연장 등 조치를 취하는 종합대책처럼 가급적 은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PF, ABCP 만기 연장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중기 대책과 별도로 건설사만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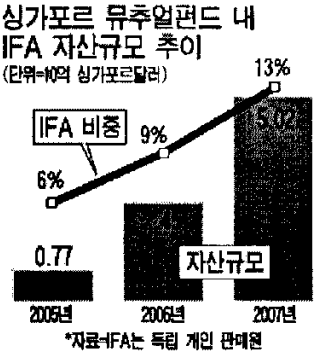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금감원의 PF사업장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건설업 지원 대책 발표 내용을 추가 조율할 계획이다.

김상민·김태근·박유연 기자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25면

□ 펀드 판매채널 다양한 싱가포르 가보니

펀드 슈퍼마켓이 불완전판매 예방



【싱가포르 박준형 기자】 지난 9일 싱가포르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단지 내 한 주택. 겉보기에는 일반 가정집 같이 생겼지만 2층 내부는 칸막이가 나뉘어져 있고 두 명씩 짝지어 상담이 한창 진행 중이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싱가포르 IFA(독립투자자문인력)들의 연합회사들은 이 같은 소규모 형태로 고객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한참 후 고객과 면담하고 나온 IFA에게 추천한 상품을 고객이 가입했는지를 묻자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2~3개월간의 상담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질문에 의아해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펀드 판매 채널 개척의 선구자로 떠오르는 싱가포르. 이 곳의 핵심에 펀드슈퍼마켓과 IFA가 있다.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펀드 판매시 부실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로 인해 고객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이 곳에서는 펀드 손실에도 불구하고 고객들 불만을 낮추는데 이들이 한 몫했다는 게 현지인들의 전언이다. 펀드 판매채널 다양화로 판매 서비스 향상을 계획 중인 한국이 눈여겨볼 대목.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여러 회사 펀드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펀드슈퍼마켓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싱가포르 내 가장 큰 펀드슈퍼마켓인 iFAST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펀드 신규 유입자금 중 33%가 이 회사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사이트를 이용한 직접 판매 외에 수많은 독립 IFA들이 이 곳을 통해 펀드 매매를 하도록 유도해 전체 펀드 자산이 4조원(회원수 9만명)에 이른다.

모혼멍 iFAST 이사는 "허가를 처음 받고 시장 선점을 한 점과 무조건 수수료를 싸게 한 것보다는 질 좋은 서비스에 치중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운용사들이 대형 판매사들의 눈치를 보거나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 펀드슈퍼마켓에 다양한 펀드 상품을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곳은 은행과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며 투자자들이 몰려 400여 개의 펀드를 판매·관리하고 있다.

펀드판매 시스템의 또 다른 축인 IFA는 말 그대로 개인이 펀드 투자자문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자산관리 자문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내년에 허용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IFA들은 금융사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법, 주식, 부동산 등 전문성을 지닌 IFA들이 모여 법인을 차린 사례가 많다. 2007년 말 현재 싱가포르 전체 펀드시장 내 IFA 점유율은 13%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싱가포르에서도 전체 펀드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정도로 높은 편이다.

IFA들이 모인 독립펀드 판매회사인 프로바이든의 에벌린 고 부사장은 "은행은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도 받기 때문에 단기간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지만 우리 회사는 자문 비용만 받아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알아서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몇 달에 걸친 상담을 하다보니 고객들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한국에서 염려하고 있는 집단소송 등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7년 말 현재 싱가포르 내 IFA는 총 2500명에 이르고 IFA 연합회사는 70개가량 된다. 싱가포르 펀드의 총 설정액은 2006년 말 기준 285억달러로 한국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파이낸셜 뉴스

2008년 10월 15일 031면

다양한 펀드 판매채널 도입 싱가포르 가다

'투자자 중심' 평생 관리 서비스 제공

자산규모 340억弗… 신규유입 은행 앞질러
국내 시장 폐쇄성 등 IFA 활성화 '아직은…'

【싱가포르=안상미기자】 국내의 경우 가계 금융자산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10%가량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제한적인 판매경로와 서비스는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판매채널보다는 낮은 수수료를 받고 다양한 운용사의 펀드상품을 한곳에서 판매하는 '펀드슈퍼마켓'이나 인정한 자격을 갖추고 펀드 등 금융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독립투자자문인력(IFA)' 등의 새로운 펀드 판매채널을 내년 2월 이후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펀드판매 채널 간의 경쟁을 통해 지금과 같은 판매사 위주가 아닌 투자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

지난 2002년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 액트(금융자문업지법)가 시행된 이후 다양한 판매채널이 신보이면서 IFA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를 가봤다.

■새로운 펀드 판매채널의 등장

싱가포르 펀드 시장 규모는 286억달러로 2824억달러에 달하는 한국 시장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펀드판매 시스템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한발 앞서 있다.

이선에는 싱가포르 역시 은행이 판매채널의 90% 정도를 차지했다. 그랬던 것이 금융자문업자법 시행 이후 IFA 등이 활성화되면서 펀드슈퍼마켓 시장(플랫폼)을 통한 펀드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싱가포르에서 IFA 자산규모는 340억달러로 전체 뮤추얼펀드 시장규모 약 2620억달러의 13%를 차지한다. 지난 2005년에는 전체 시장의 6%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두배로 성장했다.

아직도 은행의 펀드판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새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만 기준으로 한다면 펀드슈퍼마켓의 비중이 더 높을 정도로 급성장 중이다.

싱가포르 최대의 펀드슈퍼마켓(혹은 플랫폼)인 아이패스트(iFAST) 모혼밍 전무는 "온라인상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나 정보 등을 제공하며 가격보다는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했다"며 "IFA들은 상품 판매 자체보다는 평생 자산관리라는 관점에서 고객을 대하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2500명의 IFA가 활동하고 있다. 기존 보험판매원 외에 금융기관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도 각광받고 있다.

싱가포르 내에는 아이패스트와 같은 대규모의 펀드슈퍼마켓 회사뿐 아니라 IFA들이 모여서 설립한 소규모의 독립펀드판매회사 형태 등 69개의 회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판 '펀드마트' 성공할까

펀드리서치 기관인 셀룰리에 따르면 아이패스트를 비롯해 IFA의 주요 고객층은 35세부터 45세 사이의 젊은 전문직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자산은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셀룰리의 림아이문 이사는 "현재와 같은 추이라면 2011년에는 IFA 등을 통한 펀드판매 비중이 전체 싱가포르 펀드시장에서 17.4%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싱가포르와 같은 다양한 판매채널의 활성화를 국내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까.

일단 국내와 같이 자회사를 운용사로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에서는 활성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림아이문 이사는 "싱가포르의 경우 굳이 자기 자회사를 거쳐 상품을 팔 필요가 없는 개방적인 형태라 예상보다 빨리 새로운 채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며 "한국의 경우는 IFA 등이 자리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오히려 그 전단계로 국내 은행 간 좀 더 수준 높은 자산관리상담사들의 경쟁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수료보다는 투자상담 서비스에 돈을 지불한다는 데 투자자들의 거부감도 있을 수 있다.

프로비던드의 에벌린 고흐 부사장은 "싱가포르에서도 자문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을 깨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펀드슈퍼마켓이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투자자들에게 IFA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ug@fnnews.com

싱가포르 뮤추얼펀드 중 독립투자자문인력(IFA) 자산 비중

2005년	6%
2006년	9%
2007년	13%
2011년(추정)	17.4%

IFA 수입 중 수수료 vs 보수

구분	수수료	보수
2004년	67%	33%
2005년	60%	40%
2006년	63%	37%
2007년	46%	54%

자료:셀룰리 어소시에이트

프로비던드 에벌린 고흐 부사장이 싱가포르 듀스튼 힐에 위치한 본사 상담실에서 고객과 자산투자 상담을 하고 있다.

홍콩·인도 진출… 관리자산 3조원

펀드슈퍼마켓 '아이패스트'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펀드슈퍼마켓으로 아이패스트(iFAST)와 내비게이터(Navigator)를 꼽을 수 있다. 아이패스트는 약 9만명 이상의 개인고객과 50여개의 금융사 고객을 확보한 싱가포르 내 최대의 펀드슈퍼마켓 회사다.

싱가포르뿐 아니라 홍콩과 인도,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한 아이패스트의 관리 자산 규모는 3조원 정도.

아이패스트는 총 45개 자산운용사로부터 400개 정도의 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한다. 이때 상품은 기존 다른 채널보다 판매수수료가 낮게 붙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판매수수료는 거의 드물며 일반적으로 선취수수료 5%에 운용보수 1.5% 정도를 받고 있다.

아이패스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4가지.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독립투자자문인력(IFA)들로 펀드거래 시스템, 고객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직접 펀드를 구매하길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인터넷(www.fundsupermart.com)으로 펀드를 판매한다.

또 온라인 펀드판매사면서도 펀드거래나 관리 인프라를 다른 펀드 판매채널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50개의 금융회사들에게 인프라를 제공 중이다.

기업연금 부문의 경우 향후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지만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아이패스트의 주요 주주는 언론사(프레스홀딩스)와 외국계 은행 등이다. |안상미기자

"수수료 NO! 상담료만 내세요"

독립 판매회사 '프로비던드'

독립투자자문인력(IFA)들이 모여 지난 2003년 설립된 독립펀드판매회사인 프로비던드(Providend)의 가장 큰 특징이자 원칙은 수수료(세일즈 커미션 등) 없이 전문상담보수만 받는다는 것.

판매수수료 없이 상담보수만으로 운영하는 모델은 지금까지도 싱가포르에서는 프로비던드가 유일하다. 아직 투자자들에게 상담 보수는 익숙하지 않은 만큼 프로비던드의 고객은 젊은 30대 전문직이 대부분이며 최근 들어 은퇴자들도 조금씩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프로비던드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보수는 처음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보수(Set-up Fee)와 포트폴리오를 검토·조정하는 보수(Annual Fee) 등으로 이뤄진다. 보통 투자 자산의 1~2% 정도다.

전문상담보수를 받는 만큼 기존 은행 등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상담의 '질'.

프로비던드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파이낸셜 플래너로서의 투자 상담에 그치지 않는 총체적인 서비스다.

고객의 수입이나 현금흐름은 물론 보험 등 현재 투자 현황까지 모두 고려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준다는 얘기다. 먼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그 다음은 단순히 어떤 상품이 좋다고 해서 선택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이해시키고 투자를 실행하게 되며 이를 모두 완료하는 데는 약 두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안상미기자

朝鮮日報 2008년 10월 15일 a16면

위기때 뭉치는 유럽

"금융위기 대응 정상회담, 유럽통합 물꼬 틀 것"

"위기를 만날수록 강해진다."

EU(유럽연합)가 다시 한번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파고가 극에 달하며 전 세계 증시가 속절없이 폭락을 거듭하던 지난주까지도 유럽 각국은 중구난방식 땜질 처방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EU가 저력을 발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국가) 15개국 정상들은 EU 이사회 순번 의장국인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의 긴급 소집령에 따라 일요일인 지난 12일 저녁 파리 엘리제궁에 집결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유럽권 공동 대책'이란 '옥동자'를 내놨다. ▲막대한 자본을 은행권에 투입해 대출 기능을 정상화하고 ▲은행 간 자금거래의 지급을 정부가 보증해 바짝 마른 단기 자금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구체성을 띤 범(汎)유럽 공조 노력이 가시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 주말 미 워싱턴에서 잇달아 열린 G7(선진 7개국) 재무장관 회의, G20(G7+13개 신흥경제대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이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공조 행동강령'을 내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4일 "51년 역사의 EU가 파리 회담을 계기로 '유럽 통합' 작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평가했다. EU 정상회담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유로존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럽은 과거에도 커다란 고비 때 일치단결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적이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의 해체 속에 탄생한 통일 독일은 정치·경제적으로 극히 불안한 상태였으나, 독일은 동맹국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EU와의 결속을 강화해 안정을 이뤘다.

1990년대 초반엔 유럽 전역에 통화 위기가 발생했다. 통일된 독일이 옛 동독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 투자를 감행하면서 금리를 수차례 올렸고, 국제 투기자본이 독일로 유입되면서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폭등하고 나머지 유럽 통화의 가치는 폭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럽의 염원인 단일 통화 도입이 물 건너갈 뻔 했지만, 유럽은 일치단결해 1999년 예정대로 역사적인 유로화 도입을 이뤘다. 이제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와 함께 명실상부한 글로벌 양대(兩大) 기축 통화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2001년 미국을 강타한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9·11 테러로 전 세계에 테러 공포가 엄습하자 유럽은 '공동 체포영장'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테러·인신매매·돈세탁 등 30개 중요 범죄 혐의자에 대해 한 회원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나머지 회원국 전체에서 통용되도록 한 것이다. 사법과 내무 분야는 나라마다의 고유한 정서와 관습이 담겨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됐었다. 그러나 9·11 테러로 높아진 안보 경각심을 계기로, 공동 체포영장이 도입되면서 지지부진했던 내무·사법분야 통합의 길도 활짝 열렸다. 이용수 기자 heisue@chosun.com

AP연합뉴스

지난 12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가운데)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오른쪽)가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엘리제궁에 모인 유럽 15개국 정상들은 부실은행 자본 매입과 은행간 자금 거래 보증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 대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11면

골드만삭스 지주사 첫걸음 뗀다

뉴욕주에 첫 지역은행 허가신청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상업은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뉴욕주는 13일 골드만삭스가 지역은행 허가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골드만삭스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승인받은 이후 첫 번째 지역은행 설립 허가 신청이다.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는 "골드만삭스는 뉴욕의 기초와 같은 금융회사"라며 "뉴욕주는 새로운 금융감독시스템 아래 투자은행들이 사업형태를 바꿔가는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골드만삭스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해왔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주 은행들이 뉴욕주 이외 지역의 소매은행 인수를 막지 않고 있어 골드만삭스의 타 지역 은행 추가 인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의 엘리앤코 버트 엘리 대표는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역은행 허가 신청은 향후 골드만삭스의 사업 확장이나 지점 확대 등의 전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윤형훈 인턴(한국외대 3년) melichi@hanmail.net

朝鮮日報 2008년 10월 15일 a05면

"新브레튼우즈 체제 만들자" 제안 잇따라

"위기 때 IMF체제론 한계… 새 기구 만들어야"

세계를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 새로운 국제적 금융 패러다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에 설계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든 브라운(Brown) 영국 총리는 13일 "현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투명성이 떨어지고 무책임한 위험감수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신(新) 브레튼우즈 체제 도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파스칼 라미(Lamy)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로버트 졸릭(Zoellick) 세계은행 총재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다자간(多者間) 국제 금융체제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 브레튼우즈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베트남 전쟁에 따른 막대한 전쟁비용 탓에 미국이 1971년 달러 금 태환제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붕괴됐으나 IMF 중심의 글로벌 금융체제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 확산 과정에서 IMF와 세계은행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초대형 국영은행'이 대거 탄생하게 돼 세계 금융시장을 통제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파리=김홍수 특파원

브레튼우즈 체제 2차 세계대전 전후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1944년 서방 40여개국 지도자들이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 모여 만든 국제통화체제. 달러-금(金) 태환제(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국제 결제 시스템)와 IMF(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창설 등이 핵심 내용이다. 냉전시대에 세계 자본주의의 보루로 기능했지만, 과도한 시장자유주의를 조장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04면

미 공적자금 투입 예정 금융사(단위=달러)

금융사	총자산	투입규모
씨티그룹	2조1000억	250억
JP모건체이스	1조7800억	250억
BOA	2조7200억	250억
메릴린치	1조200억	50억
웰스파고	1조4200억	200억
골드만삭스	1조2200억	100억
모건스탠리	1조1200억	100억
뉴욕멜론은행	1조	20억~30억
스테이트 스트리트	1조9000억	20억~30억

*메릴린치는 BOA에 인수될 예정

□美정부 은행지분 매입 급물살

경제권력 월街서 워싱턴으로

【워싱턴 윤경호 특파원·서울 김민구기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2500억달러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메릴린치 등 9개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주식을 사들인다는 지원계획을 14일 공식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낭독한 성명을 통해 공적자금 7000억달러 가운데 당장 사용 가능한 2500억달러를 은행 지분 매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은행 채권 보증과 보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가 지금까지 발표된 다른 대책들과 함께 미국 경제를 성장과 번영의 길로 되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선진7개국(G7) 회의에 참석한 다른 회원국이 취한 조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 노력 일환으로 마련됐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금융회사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금융시장 구제계획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티그룹등 9개 은행에

1250억달러 우선 투입

버냉키 의장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나타난 도전과 어려움이 크고 복잡하지만 이번에 취한 조치들이 이런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폴슨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들은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은행 지분 매입에 쓰는 2500억달러 중 절반인 1250억달러를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메릴린치 등 9개 주요 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데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은행별 지분 투자금액을 씨티그룹 250억달러, 웰스파고 250억달러(와코비아 50억달러 포함), JP모건 체이스 250억달러, BOA 200억달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각 100억달러, 메릴린치 50억달러, 뱅크오브뉴욕멜론과 스테이트스트리트는 각 20억~30억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은행 간 거래 채무에 한해 3년간 지급 보증을 하는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금융사 간 자금 거래에서조차 아무리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나서도 돈을 빌려주려 나서는 곳이 없는 상황은 상호 불신 때문이다. 상대 금융회사의 숨겨진 부실 가능성을 염려해 돈 거래를 꺼리는 실정이었다. IMF 연례 총회에 참석한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JP모건체이스와 BOA 등 업계 수위를 다투는 두 은행끼리도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거래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결국 당장 이런 동맥경화 현상을 풀지 않으면 시장 회복은 요원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조치 후 불아닥친 금융시장 위기의 핵심이 바로 은행 간 자금 거래 동결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지경에 이른 은행의 주식을 직접 사들일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 크루그먼 교수

"금융위기 해결되겠지만 경기침체 상당기간 지속"

미국이 은행 부문 국유화를 실시한 것과 관련,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55·사진)의 주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는 13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직후 뉴저지 프린스턴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매우 기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라며 자신의 평소 소신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영국 정부가 이날 아침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 최대 은행 두 곳에 총 64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감한 결정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책 우선 순위를 금융시스템에 대한 직접 자본 투입,금융사 간 대출에 대한 일시적 보증,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업 간접투자를 확대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미국 정부가 모두 채택한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고 경제도 붕괴되지 않을 것이나 경기 침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를 부른 요인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 커져 가는데 이에 상응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기의 근저에는 엄청난 개인들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탐욕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규제도 탐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붕괴가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대목에서는 경고음을 분명하게 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점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사태가 부분적으로 올 것으로 어느 정도인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주택 관련 파생상품 구조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탓에) 금융사의 재무구조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한 국 경 제

아이슬란드 IMF에 구제금융 요청
국가부도 위기로 주가 77% 폭락

국가 부도 위기 국면으로 내몰린 아이슬란드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했다고 로이터와 AP 등 주요 외신이 14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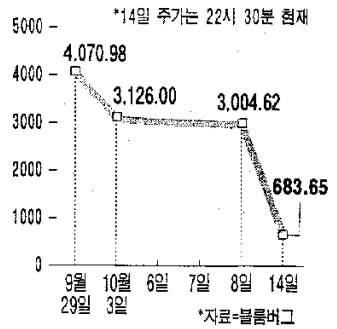
익명을 요청한 IMF 관계자는 IMF 이사회가 지난주 말 아이슬란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논의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할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IMF 외에 러시아에도 수십억 유로 지원을 요청하고 그동안 자금공여 조건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이 나라 주요 산업인 어업 분야에서 강력 반발해 제동이 걸렸던 유럽연합(EU) 가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사흘간 폐장됐던 아이슬란드 주식시장이 14일 다시 개장하자마자 76.13%라는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했다. 북유럽 종목들이 거래되는 나스닥 OMX 증시의 아이슬란드 15지수는 14일 밤 10시 30분 현재(한국시간) 683.65로 이전 거래일 종가에 비해 77.5%로 낙폭이 더 커졌다.

금융산업 비중이 큰 아이슬란드는 미국발 신용위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주 3대 은행을 차례로 국유화하고 주식 거래를 중지시키는 한편 통화 방어도 포기하는 등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아이슬란드 크라운화는 가치 폭락을 거듭해 현재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아이슬란드 15지수 흐름



유럽의 '작은 부국(富國)'인 아이슬란드는 1991년 이후 이자율 상향과 외환 통제 완화, 외국 투자 유치 강화 등 금융시장을 과감히 개방했다.

아이슬란드가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진 데에는 그동안 은행과 기업들이 느슨한 금융 규제를 이용해 국내에서 돈을 빌려 유럽 등 외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이 외채를 과다 차입하는 바람에 이 나라 4대 은행의 해외채권 규모는 현재 1000억달러가 넘는다. 김민구 기자

매 일 경 제

서울경제
2008년 10월 15일 a12면

—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국면

아이슬란드 첫 국가부도 가능성

구제금융 요청위해 IMF관계자 만나… 구체적 합의는 안돼

아이슬란드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첫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아이슬란드의 정부 관료들이 자국의 금융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IMF 관계자는 13일 "IMF 이사회가 지난주 말 아이슬란드가 요청한 구제금융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할지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MF 대변인은 그러나 아이슬란드에 IMF 실사팀이 머물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으나 아이슬란드가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는 IMF 외에 러시아에도 수십억유로의 지원을 요청하고 자금공여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국가기간 산업을 어업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한 아이슬란드는 미국발 신용위기의 충격을 막기 위해 지난주 3대 은행을 국유화하고 주식 거래를 중지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써왔으나 최근 아이슬란드 크로나화의 가치 폭락이 거듭돼 통화 방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슬란드는 이번 금융 위기를 계기로 그간 주요 산업인 어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제동이 걸려왔던 유럽연합(EU) 가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호기자leastern@sed.co.kr

서울경제
2008년 10월 15일 a12면

파키스탄·아르헨등도 부도위험 80%

리먼사태후 CDS 스프레드 뛰어
외자 대규모 이탈 헝가리도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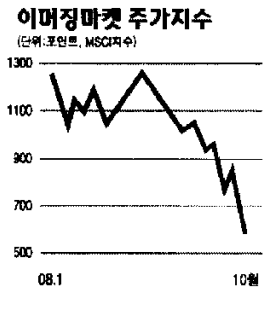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 다수의 이머징 국가들도 아이슬란드와 마찬가지의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각국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국가 신용디폴트스와프(CDS) 거래에서 이머징 국가의 부도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국제 CDS 시장에서 파키스탄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의 부도 위험이 80%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의 CDS 스프레드(5년물 기준)가 3,026bp를 기록, 부도 위험이 90%에 육박했다. 또 아르헨티나의 부도 위험이 85%(CDS스프레드 2,383bp), 우크라이나가 80%(1,600bp), 카자흐스탄이 60%(1,050bp), 터키가 35%(480bp)로 각각 나타났다.

CDS는 해당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부도 위험을 막기 위해 드는 보험료율을 말하는 것으로, 1,000bp는 5년간 1,000만달러의 빚을 보증하기 위해 100만달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료:톰슨 데이터스트림

파키스탄의 경우 수년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극도의 치안불안에다 경제 체력이 바닥나 최근 투피화 약세로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의 국가 CDS 스프레드는 지난 9월15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후 세 배가량 상승했다.

세계은행은 이와 관련, 13일 파키스탄에 올 회계연도(2008년3월~2009년4월)에 1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금액중 6억달러는 애초 계획된 인프라 투자자금이며 나머지 8억달러는 거시경제 안정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IMF는 13일 별도 성명에서 "지난 며칠간 헝가리 정부와 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협의해 왔다"면서 "필요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통화인 포린트는 외자가 대규모 이탈하는 가운데 지난주 유로에 대해 가치가 2년여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14일 IMF와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거부했다.

헝가리의 주르차니 페렌츠 총리는 그간 IMF와 협의해왔음을 확인하면서 그러나 "IMF 등의 구제 금융은 최후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헝가리가 투기 자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1976년 영국을 지원한 후 지금껏 유럽국에 구제 금융을 제공한 적이 없다.

/강동호기자leastern@sed.co.kr

매일경제

10월 15일 a22면

"내년 상하이지수 3500선 회복할것"

중국 정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상하이종합지수가 3500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한화증권은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지난 11개월간 70%가 넘는 주가 하락으로 상하이종합지수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연재해가 없다면 내년에 350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화증권은 중국 정부 긴축정책 완화와 경기부양책 등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신주 발행 중지, 대차거래제도 도입 등 각종 증시 안정대책도 향후 중국 증시 상승을 낙관하는 이유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는 부동산시장과 막대한 대출 규모가 언제든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10년간 성장을 거듭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 대출 총액 중 18%에 달하는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10면

中 왕치산 부총리 비상委 위원장에

금융위기 대책마련 총괄

왕치산 중국 부총리(사진)가 또다시 '소방수'로 등장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실물경제 악화 등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것으로 판단,비상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왕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중국 경제일보는 14일 새로 설치되는 비상위원회는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외시장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며 적기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게 주요 임무다. 국무원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교류 창구역할도 하게 된다.

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직후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리먼에 대한 투자금액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는 등 정보소통이 안 되자 중국 지도부 사이에 금융위기를 총괄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또 여러 기구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이 워낙 빨리 변하는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왕 부총리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광둥성 금융회사가 연쇄부도 직전의 상황에 몰리자 광둥성 부성장으로 부임,사태를 깔끔하게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왕 부총리는 또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가 창궐했을 때 베이징 시장으로서 사태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 큰 재앙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왕 부총리가 긴급 투입돼 진화했던 점이 높이 평가돼 이번 비상위원회에서도 왕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10면

日, 금융위기 '방화벽' 미리 친다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일본 정부는 14일 지방은행에 예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능강화법의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했던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 겸 금융상은 이날 금융기능강화법을 부활할 방침이라며 "국회 사정이 있기 때문에 확약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능강화법은 지역 금융회사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건전한 은행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2004년 8월 발효돼 올 3월 폐지됐다.

이번 금융 안정화 대책은 아소 다로 총리가 G7 회의 참석 후 지난 13일 저녁 귀국한 나카가와 재무상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능강화법 부활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것이다. 이번 안정화 대책에는 경영이 파산 상태에 놓인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제도를 내년 4월부터 3년간 연장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또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정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 일시 동결 등의 조치도 들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1000만엔인 예금 보호 한도를 폐지,한시적으로 전액 지급보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머니투데이 2008년 10월 15일 016면

세계증시랠리 '러시아만 소외'

시장안정대책 불구 리스크 여전… 또 급락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의 금융위기 공조 대책으로 13일(현지시간) 뉴욕과 유럽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지만 러시아증시는 또 급락했다.

특히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행진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날 러시아증시의 미섹스지수는 전날보다 34포인트(4.85%) 급락한 666.37로 마감했고 RTS지수는 53.55포인트(6.34%) 밀린 791.20으로 거래를 마쳤다.

유럽과 미국의 공조와 이에 따른 증시 폭등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 전문가들은 유가하락으로 러시아기업들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없어진 데다 금융위기 속에서 그루지야 침공 등으로 러시아의 국가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계적 공조를 위해 각국 지도자가 수시로 모이지만 러시아만 빠진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날 다우지수는 11.08%, S&P 500지수는 11.6% 급등했고 영국 FTSE100지수는 8.26%, 독일 DAX30지수는 11.4% 각각 급등했다. 프랑스 CAC40지수는 11.2% 올랐다.

이밖에 스페인 마드리드지수가 10.37%, 스위스 SNI지수가 11.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래소 지수가 10.5% 각각 폭등했고 국가부도 위기에 빠진 아이슬란드 ICEX 15지수도 보합으로 마감했다.

한편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영은행인 VEB에 500억달러를 지원해 시중은행과 기업들의 외채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러시아 2위 은행인 VTB는 올해와 내년에 외채 114억달러를 갚기 위해 VEB에 대출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유림 기자 kyr@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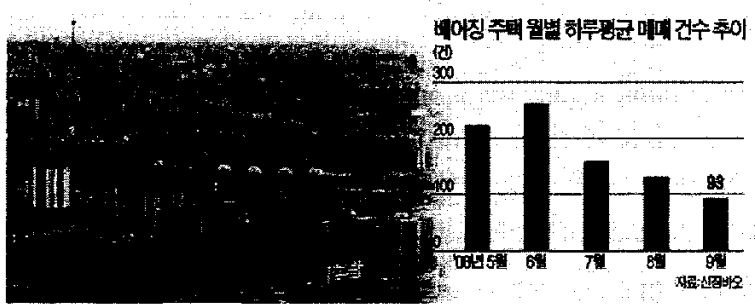
베이징 부동산 '패닉'

아파트 한채 덤으로 줘도 안팔려
급매물 쏟아져도 거래는 한산
문닫은 중개업소 올해만 7800곳

베이징 부동산 시장이 패닉(공황심리) 상태에 빠져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 문회보는 14일 남부 선전에서 시작된 부동산 거품 붕괴가 상하이 베이징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도 이르면 내달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이날 전했다. 9,10월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지만 올해는 거품 붕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회보는 베이징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기존주택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들어 긴급히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인 중위안의 경우 급매물이 전체 등록 매물 가운데 20%에 이른다. 베이징에선 이달 들어 매물로 나온 아파트 가운데 80% 이상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입주를 시작하는 베이징 팡산구에 있는 시청 궈지 아파트의 경우 한 채를 사면 한 채를 덤으로 준다는 '마이이쑹이(買一送一)'를 내세우면서 주택가격을 50%나 할인, ㎡당 3650위안(약 65만7000원)에 팔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대거 투자한 왕징 지역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월 9000위안(162만원)을 받던 왕징 지역 아파트 임대료가 최근 8000위안(144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은 거래 급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9월 베이징시 주택 거래는 2788채로 3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베이징에서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문을 닫은 부동산 중개업소만 7800여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회보는 올해 기존주택 판매가 8만채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하이도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기존주택 판매는 4667채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9% 줄어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고 제일재경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신규주택 판매도 76.8% 감소했다. 리먼브러더스와 모건스탠리 등 자금압박을 받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에서 매입한 부동산을 다시 매물로 내놓고 있다는 소식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 4분기 이후 선진시에서부터 하강하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가 주요 도시로 확산되면서 금융회사 부실이 커지고 소비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이르면 내달 내놓을 부동산 긴축완화 정책의 골자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보다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의 규제를 없애거나 부동산 매입시 세금을 감면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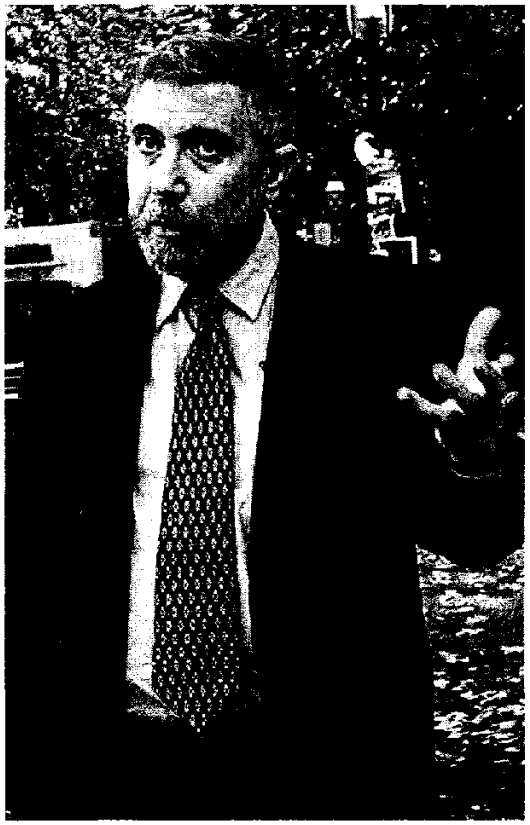
오광진 기자 k.oh@hankyung.com

매일경제

2008년 10월 15일 a02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 폴 크루그먼 교수 인터뷰

글로벌 공조에 금융위기 두려움 줄었다



▶美경기침체 상당기간 지속될것

▶디커플링 없다…신흥국도 영향

▶한국경제는 취약성에서 벗어나

[프린스턴(뉴저지) 위정환 특파원] "현재의 금융위기가 대공황 때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유럽 정상 등 각국의 대응책 덕분에 며칠 전보다는 두려움이 덜해졌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55)는 13일(현지시간) 프린스턴대에서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고 경제도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황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아시아가 미국의 경제 둔화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잘못된 것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신흥국가들도 미국 경기 둔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은 취약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다.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나.

▶현재 전 세계 금융위기는 매우 공포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 1990년대에 아시아를 강타했던 위기와 같이 심각한 위기를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 위기는 대공황 때와도 몇몇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다만 영국 은행의 국유화와 달러 무제한 공급 등 유럽 정상들의 대응책 덕분에 지난 금요일보다는 두려움이 다소 덜해지고 훨씬 더 편안해졌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여전히 걱정스럽다. 미국은 매우 느리다. 일주일 정도 후에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을 투입한다고 들었는데 금융시장에서 일주일은 매우 긴 시간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다.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서 베어스턴스 구제금융 등 잘 대처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다. 리먼브러더스를 파산하도록 방치한 것과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구제금융안이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영국의 금융위기 해결방안을 매우 높이 평가했는데.

▶영국은 지난 수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소유하는 방안이다. 미국 정부는 이틀이 지난 후에 영국과 같은 방식의 구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국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국가에 해결의 틀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향후 금융위기를 어떻게 전망하나.

▶미국은 결국 주요 금융회사를 구제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구제하기 전에 타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가 문제다. 앞으로 한번에 내놓는 종합대책안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부양조치가 연달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회사들은 결국 새로 건설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과정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일본처럼 10년이 될 수도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고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엔진 전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월가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 경제는 건강한 상태로 남아 있다.

-미국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가.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경제가 붕괴되지는 않더라도 이번 경기 침체는 상당히 길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아시아 경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다. 이후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경제위기를 겪었다. 전 세계 금융위기를 딛아 아시아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염려도 있는데.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도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각국의 금융제도는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섞여 있어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국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또다시 외환위기를 겪을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최근 들어 한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신문 2008년 10월 15일 016면

美 월街 실직자들 엑소더스

설문조사 절반 이상 "브릭스 등에 구직기회 있다" 응답

헤드헌팅社 "중동 두바이 등에 취업행렬 러시" 지적도

미국의 한 제조회사 부사장이었던 제이 카슨(37)은 지난 8월 이후 실직 상태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인 그는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로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는 "취업기회만 있다면 어느나라도 관계없다."면서 "덴마크가 영어도 잘 통하고 경제상황도 안정적인 편이어서 끌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뉴욕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서 퇴직한 아리엘 카츠는 경제둔화로 새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지자 지난 6월 이스라엘로 아내와 함께 이주했다. 그는 "하루하루가 최악인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에선 금융위기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편안해했다. 금융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취업 틈새시장을 뚫고 있다.

대학생과 MBA 전공자 등 젊은 세대는 물론 가족을 거느린 가장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이역만리까지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전했다. 미국에선 몇달 새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금융전문가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9월에만 15만 9000명이 넘게 직장을 잃는 등 구직자가 폭증한 탓이다. 세계 최대 헤드헌팅회사인 콘/페리 인터내셔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38명의 53%는 최상의 구직 기회가 브릭스(BRICs) 등 개도국에 있다고 답했다. 20%는 해외에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당장 받아들이겠노라고 응답했다.

고용관계자들은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로 세계 주요 시장이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아시아, 중동, 동·중유럽권은 취업 기회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의 취업 전망은 특히나 밝다. 헤드헌팅업체 하이드릭&스트러글스 대표인 알렉스 에스코트는 "취업희망자들이 중동의 두바이 등지로 몰려가는 골드 러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베이징, 상하이, 모스크바에도 기회는 널려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월가(街) 못지않게 금융 혼란에 허덕이고 있는 런던 시티도 금융전문가들에겐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의 한 헤드헌팅사 대표인 로버트 울만은 "적어도 2009년 2·4분기까지는 미국 금융부문의 고용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고 조언했다. 고용경색이 풀릴 때까지 구직자들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이후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세 배는 증가했다."면서 "뉴욕 헤지펀드에 수십억달러를 굴리던 한 금융사 직원도 지난 7월 상하이 새 직장으로 옮겨갔다."고 소개했다.

헤드헌팅사인 스탠튼 체이스 인터내셔널 댈러스 사무소에는 올해 덴마크의 한 다국적 기업이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뽑는데 지원자가 7명이나 몰렸다. 지난해라면 겨우 한두 사람 올까말까 했던 상황과는 판이하다. 예비취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학교들도 움직이고 있다. MIT 슬론 경영스쿨의 커리어개발 책임자 재키 윌버그는 "홍콩, 런던, 상하이 지역 투자은행 쪽에 재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져 내년 1월 홍콩 취업박람회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네티컷 대학 비즈니스스쿨은 실업자가 된 졸업생들을 위해 해외 취업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한국경제 2008년 10월 15일 a11면

'왕따' 시키면 상여금 안줘!

씨티그룹, 동료간 융합정도 따져 지급

씨티그룹의 증권·투자은행 부문을 이끌고 있는 존 헤이븐스 대표가 상여금 체계를 바꿔 조직의 '패거리 문화'를 없애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씨티그룹은 1998년 존 리드가 이끌고 있던 씨티은행과 샌디 웨일의 보험·증권사인 트래블러스가 합병돼 세계 최대 금융그룹으로 탄생한 이래 조직 내부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헤이븐스 대표는 최근 증권·투자은행 부문 경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직원들의 상여금을 결정할 때 얼마나 동료들과 잘 융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그룹 내 다른 부문 및 파트너사와의 협조 노력 등이 상여금 결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크람 팬디트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와도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헤이븐스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씨티그룹의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던 조직 내부의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하면서 그룹 협력사들과의 관계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씨티그룹은 이에 따라 앞으로 500여명의 팀장을 선임,조직과 고객사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관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길 예정이다. 헤이븐스 대표는 지난해 씨티그룹의 증권·투자은행 부문이 52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도 조직 내 불화와 협력사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일부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씨티의 파편화된 조직 체계가 이번 조치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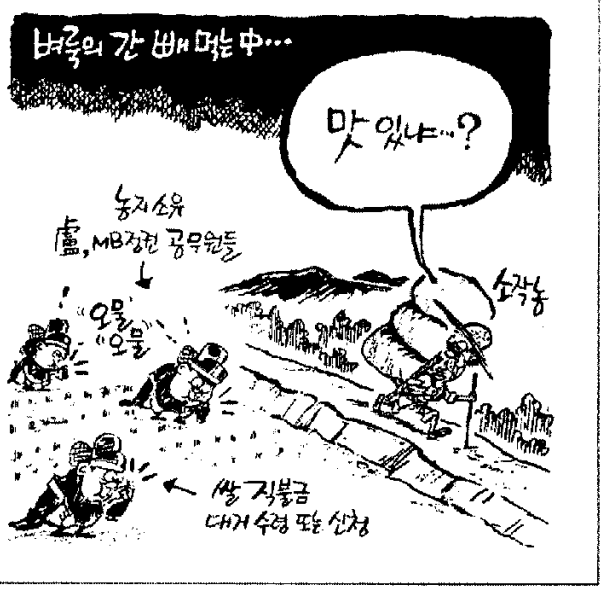
월가의 한 CEO는 "헤이븐스의 생각은 옳지만 지금껏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성공시키진 못했다"며 "이번 계획이 씨티 내부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朝鮮日報

10월 15일 A02면

신 경 무 朝鮮漫評 kmshin@chosun.com



경향신문

2008년 10월 15일 003면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한겨레

THE HANKYOREH

2008년 10월 15일 00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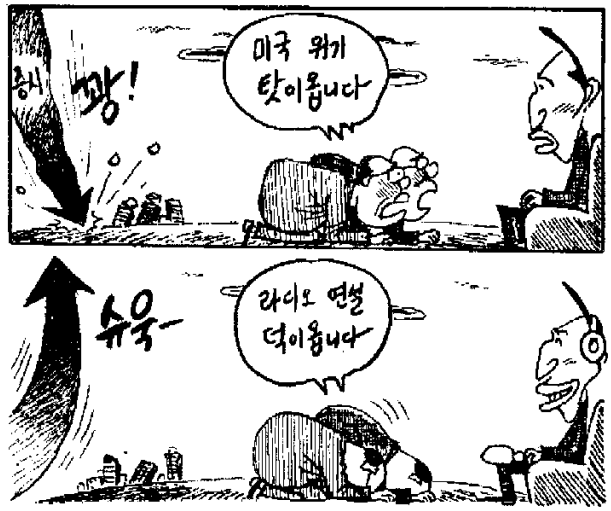
한겨레 그림판

장봉군 jang@hani.co.kr

서울신문

10월 15일 002면

서울만평 백무현 bmh@seoul.co.kr



美, 9개 은행 '부분 국유화'

부시 "2500억달러 투입해 씨티그룹·BOA 등 지분 매입"

어제 세계증시 급등… 美 오늘 새벽 혼조세

10년 전엔 울면서 은행문 나섰지만 …

외환위기와 지금, 10대 기업 기초체력 비교해보니

10대기업 매출 155% 늘고 당기순익 10배

삼성전자 현금 보유액 7조원 … 97년의 5배

농지 편법소유 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 조사

감사원 "2006년 서울·과천 공무원 520명이 받아"

IMF "각국 경기부양을"

美 2500억달러 투입

은행 지분 매입하기로

"北·중국發 해킹, 정부자료 13만건 유출"

2004년부터… 국정원 보고

공조의 힘… 어깨 편 증시

코스피 79P 급등… 아시아 주가 동반 상승

원-달러 1200원대로 하락

936↑ '다우 효과'에 웃다

코스피 단숨에 1300대

환율은 나홀째 하락세